

# 三 姓 神 話 研 究 \*

玄 容 駿 \*\*

## 目 次

I. 序	V. 文化背景
II. 異本과 内容	VI. 構造와 思考
III. 類型과 性格	VII. 結 論
IV. 形成과 系統	

## I. 序

三姓神話는 濟州島의 三姓氏族의 始祖神話인 동시에 耽羅의 開國神話다. 이 신화는 韓半島의 다른 건국신화에 비해 특이한 話素로 짜여져 있어, 제주도 신화의 특이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한국 古代神話에 있어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神話의 연구는 제주도 신화의 특성해명 및 한국 古代神話 연구에 一翼이 되는 동시에 耽羅의 古代史 내지 그 文化的 해명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 三姓神話에 대한 言及들은 상당히 많으나, 새로운 각도에서의 본

\*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會에 의한 것임.

\*\* 師範大學 國語敎育科 敎授

격적인 연구로는 張籌根<sup>1)</sup>, 梁重海<sup>2)</sup>, 그리고 筆者의 것을 들 수 있다.<sup>3)</sup> 이것들은 神話學的, 民俗學的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올린 것임에 틀림없으나,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가 적지 않다.

三姓神話의 神話學的 연구에 있어 해명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三姓神話의 基本類型과 性格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제주도내의 다른 類似한 說話들은 찾아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그 본래적 유형과 성격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신화는 제주도에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傳播, 形成된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는 한국의 古代神話 뿐 아니라, 周邊民族의 神話들과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셋째, 이 神話의 文化적 배경 문제. 이 문제는, 이 신화의 형성이 自生的이든 傳播의 결과든 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형성시킨 것은 古代濟州의 社會·文化이니, 이 신화의 분석과 比較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신화의 構造와 거기에 담긴 思考의 論理문제. 이 문제는 이 神話의 構造分析을 통하여 그 構造原理와 의미를 해석해 봄으로써 어떤 思考의 論理와 價値體系를 상징하고 있는가가 밝혀질 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三姓神話의 여러 문제의 해명을 목표로 한, 神話學的, 종합적 연구 시도이다. 이 시도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古代濟州人의 文化的 系統 및 특성을 밝히는 데 一助가 될 것이다.

1) 張籌根; 「三姓神話 解釋의 한 試圖」,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pp. 65 ~ 70.

2) 梁重海; 「삼성신화와 혼인지」, 『國文學報』 3,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0, pp. 49 ~ 73.

3) 玄容駿; 「堂宮의 儀式化와 三姓神話」, 『제주도』 14, 濟州道, pp. 120-133.

## II. 異本과 內容

三姓神話는 많은 文獻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전설로서도 전승되고 있으며 巫歌에도 그 殘影을 남기고 있다. 전설로서 전승되는 것은 원래 부터의 口傳 그대로 순수한 것이기보다 文獻記錄의 영향을 받아 口碑化한 부분들이 꽤 있는 듯하며, 巫歌로서 전승되는 것은 곳의 초감제 때에 곳하는 장소를 神에게 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上古代를 해설하는 대목에 단편적으로 노래불러져 그 전모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說話構造를 갖춘 異本들은 역시 文獻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三姓神話의 異本들은 많지만, 그 내용은 大同小異하여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話素의 세세한 부면까지를 고려하여 살핀다면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高麗史』의 記事系統이요, 다른 하나는 『瀛洲誌』의 記事系統이다. 文獻에 따라서는 이 양 계통 기사를 절충한 것들도 있다. 『高麗史』는 그 刊行年代가 분명하지만 『瀛洲誌』는 그 年代가 확실치 않아 어느 記事가 먼저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sup>4)</sup>

### 1. 『高麗史』系

먼저 『高麗史』계통의 기사부터 보기 위하여 『高麗史 地理誌』(端宗 2年 1954년 刊)에 수록된 三姓神話を 보기로 하자.

耽羅縣은 全羅道 남쪽 바다에 있다. 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神이 땅에서 솟아났다. 한라산의 북녘 기슭에 구멍이 있어 毛興人이라 하니, 이 곳이 그것이다. 만이를 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高乙那라 하고 세째를 夫

4) 金奉玉氏는 瀛洲誌를 「고려말엽 내지 이조초엽의 저작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여 『高麗史』보다 오랜 문헌으로 보고 있다.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1 참조.

두 문헌 중 어느 것이 먼저 간행되었든, 이 神話を 神話學的으로 考察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乙那라 했다. 세 神人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五穀의 씨가 있었다. 이에 使者가 말하기를 「나는 日本國 使者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神子 세 사람이 탄강하시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고 하시며 臣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므로 왔오니, 마땅히 배필을 삼아서 大業을 이루소서」 하고 使者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니, 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一都라 하고, 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二都라 했으며, 夫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三都라 했다. 비로소 五穀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지더라.<sup>5)</sup>

이와 유사한 기사가 실린 주요한 문헌을 들면 『新增東國輿地勝覽』(中宗 25년, 1530년), 李元鎮 『耽羅志』(孝宗 4년, 1653년), 『東國通鑑』(成宗 때), 李衡祥 『南宮博物』(肅宗 28년, 1702년) 誌古條, 『海東釋史』(正祖 때), 金斗奉 『耽羅誌』(1933년), 李秉延 『朝鮮實輿勝覽』(1935년), 金斗奉 『濟州島實記』(1932년) 등이 있다. 이들 중 『新增東國輿地勝覽』, 李元鎮 『耽羅志』, 『南宮博物』, 金斗奉 『耽羅誌』, 『朝鮮實輿勝覽』 등은 「高麗史古記云…」이라 하여 『高麗史』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다만

5) 原文: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盤出(今嶺山北麓 有穴曰 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避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部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且牧駒犢 日就富庶(下略)

三乙那의 所居地인 「一都, 二都, 三都」의 「都」를 「徒」로 바꾸어 놓고 있을 뿐이다. 『東國通鑑』 『海東釋史』의 기사도 『高麗史』의 기록과 大同하여 문자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遊獵荒僻 皮衣肉食」을 「出獵海濱」으로, 三神女 漂着地인 「東海濱」을 「海濱」으로, 「青衣處女三人」을 「三女」로, 「歲次分娶」를 「分娶」로, 「射矢卜地」를 「卜居」로 바꾸어 적어 놓았을 뿐, 그 내용은 전혀 같다. 그리고 金斗奉 「濟州島實記」는 한글문장으로 적었는데, 李元鎮 『耽羅誌』를 번역한 듯하며, 다만, 세 神女의 나라를 「벽랑국(碧浪國) 즉 日本使者라」라 해석을 붙이고, 三乙那의 所居地를 「良乙那 所居는 第乙那一徒요, 高乙那 所居는 第乙那二徒요, 夫乙那 所居는 第乙那三徒라」와 같이 표기해 놓은 것이 다를 뿐이다.<sup>6)</sup> 이런 점으로 보아, 이들 문헌의 기록은 모두 『高麗史』의 것을 그대로 옮겼거나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결국 같은 계열의 것이라 할 것이다.

## 2. 『瀛洲誌』系

「瀛洲誌」는 單行本이 아니라, 世宗 32年(1450년)에 高得宗이 지은 序世文과 기타 高氏世譜에 점철되고 있는데, 그 중 奎藏閣 소장의 「瀛洲誌」에 실린 三姓神話를 보면 다음과 같다.

瀛洲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홀연히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나니, 한라산 북녘 기슭에 있는 毛興穴에서 솟아난 것이다. 만이를 高乙那, 다음을 良乙那, 셋째를 夫乙那라 했다. 그들의 용모는 장대하고 도량은 넓어서 인간세상에는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肉食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아 家業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바라보니 자줏빛 흙으로 봉한 나무함이 동해쪽으로 떠와서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내려가 이를 열어 보니, 그 속에는 새알모양의 玉函이 있고 자줏빛 옷에 관대를 띤 한 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그 玉函을

6) 위 각 문헌의 記事는 梁重海(1970)원책에 종합 수록된 바 있다.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6세요, 용모가 속되지 않아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와 송아지, 五穀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金甌의 바닷가에 내려놓았다.

세 神人은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고 했다. 使者은 再拜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東海 碧浪國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공주를 낚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해도 그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해가 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께서 紫霄閣에 올라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神子 세 사람이 絶岳에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臣에게 명하여 세 공주를 모셔 가라 하여 왔으니, 마땅히 혼례를 올려서 大業을 이루소서」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세 神人은 곧 목욕 제제하여 하늘에 고하고, 나이 차례로 나누어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니, 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一都라 하고, 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二都라 했으며 夫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三都라 했다. 이로부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날로 살림이 부유해져서 드디어 인간의 세계를 이룩해 놓았다.

그 이후 9백년이 지난 뒤에 인심이 모두 高氏에게로 돌아갔으므로 高氏를 왕으로 삼아 국호를 毛羅라 했다. 7)

7) 奎章閣藏, 『瀛洲誌』,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所收, pp.2~4.

原文: 瀛洲 太初 無人物也 忍有三神人 從地湧出鎮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裕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拏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名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朧 中有絶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

「瀛洲誌」는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異本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다. 가령 『長興高氏家乘』등 高氏家乘에 실린 「瀛洲誌」를 奎藏閣 소장의 것과 비교해 보면 「毛興穴」이 「慕興穴」로,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라는 序次가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三神女가 漂着한 곳 「金塘之岸」에 대하여 「즉 지금의 朝天館 밑의 浦口가 그것이다 (即今朝天館下浦是也)」라고 구체적으로 주석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三乙那의 所居地 기록은 「高乙那의 所居는 第一都이니 漢擎山 북쪽의 一徒里요, 良乙那의 所居는 第二都이니, 漢擎山 右翼의 남쪽 山方里요, 夫乙那의 所居는 第三者이니, 漢擎山 左翼의 남쪽 土山里라」하여 一徒里(現濟州市 一徒洞), 山方里(安徳面 山房山이 있는 德修里인듯), 土山里(表善面 兎山里)등 朝鮮朝 때의 濟州·大靜·旌義 三縣의 地名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의 杓트머리에,

그 후 9백년 후에 세 사람(三乙那를 말함. 筆者註)이 각자 돌을 쏘아 勇力을 시험하니, 高氏가 上이 되고 良氏가 中이 되고 夫氏가 下가 되었다. 그래서 民心이 高氏에게 돌아오므로 高氏는 君長이 되고 良氏는 臣下가 되고 夫氏는 백성(民)이 되어서 國號를 毛牟라 했다.

이렇게 건국의 경위와 君·臣·民의 序列이 기록되어 있다.<sup>8)</sup> 이와 같은 내용은 李衡祥의 『南宦博物』誌蹟條에도 高氏世系錄의 引用 形式으로 기록되

---

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忍乘雲而去 莫知所之 三神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下略)

8) 이를테면 孝烈公派 『長興高氏家乘』에 실린 「瀛洲誌」의 三姓神話 原文은 다음과 같다.

太初無人物 忽有三神人 從地中湧出 于漢擎山北麓曠壤地品字之穴 名曰慕興穴 三人之出 正當九韓時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擎山上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 欲留不去 三人相謂曰 異哉彼物也 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拆其封體然 羅衣淑女三人 年皆十五六 容

어 있다. 여기에는 다만 「一都. 二都. 三都」의 「都」가 「徒」로 달라졌을 뿐이다.<sup>9)</sup> 『瀛洲誌』記事 제열에 넣을 수 있는 것에 鄭以攄가 지은 「星州高氏傳」(太宗 16年, 1416年)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耽羅의 경내에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다. 거기 기이하게 빼어난 산이 있는데 漢擊山이라 한다. 雲海가 아득한 곳 위에 완연히 있으니, 그 신령스러운 和氣를 내리어 산의 북쪽 毛興穴에 神人을 化生시켰다. 세 사람이 同時에 솟아났는데, 高乙那·良乙那·夫乙那라 하니, 高乙那는 곧 高氏의 시조다. 이들은 모두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먹어 살았다. 족보에 이르기를, 日本國 임금의 딸 일곱을 낳았는데, 넷은 丹狄國에 보내니, 丹狄은 곧 이른바 赤狄의 종족이다. 나머지 딸 셋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서남쪽 바다에 산이 있어서 神人 세 형제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나라를 세우려 하나 배필이 없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를 섬기라. 후세에 자손이 반드시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하고, 그들을 木船에다 태우고 五穀의 씨와 마소까지 갖추고, 또한 神人으로 하여금 보호하여 그들을 보냈다. 그

委脫俗 氣偉窈窕 各修飾而坐 且持駒犢五穀種 出置金塘之岸 卽今天館下浦是也 三神人自賀曰是天必授我三人也 語畢 烏巾紅帶青衣使者亦從函中而出 稽首再拜曰 我是東海上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俱壯長 而永不得所耦 嘗欲遣與者 歲餘 頃者 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蔽騰 中有絕岳 湧出三神人 將欲開國 而各無配匹也 因此命臣侍三女而送 屢用伉儷之禮 以成大業已 而忽然乘雲而去 莫知所之 三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漢擊山北一徒里 良乙那所居曰第二都 漢擊右翼之南山方里 夫乙那所居曰第三都 漢擊左翼之南土山里 自茲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種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境 蓋九百之後 三人各射石以試勇力 高爲上 良爲中 夫爲下 故民心並歸于高氏 以高爲君長 以良爲臣 以夫爲民 而國號壬牟 以其牟穀茂盛之故也…(下略)

이 瀛洲誌의 끝에는 「景泰元年 庚午 正月 元日 崇祿大夫行吏部尙書 漢城判尹 高得宗 謹誌」라 써 있다. 景泰元年是 1450年 世宗 32년에 해당한다.

- 9) 李衡祥; 『南宦博物』誌蹟條, 原文: 初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兄弟三人分處 其地名其所居曰徒.

高氏世系錄曰 三人射矢卜地 高所居曰 第一徒 漢擊山北一徒里 良所居曰第二徒 漢擊右翼之南山房里 夫所居曰第三徒 漢擊左翼之南土山里 九百年之後 三人各自射石以試勇力 高爲上 良爲臣 以夫爲民 國號壬牟 以其牟穀茂盛也 今之州城內 分三部 曰一徒 曰二徒 曰三徒 徒字疑是都字之誤 而方音稱徒曰乃 似是其時所稱也

들이 耽羅의 동쪽 바닷가에 이르자, 神子 세 사람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그들과 만났다. 그들을 호위하고 온 神人은 붉은 가죽머를 띠고 자주빛 장삼을 입었는데, 하늘로 날아 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누어서 그들과 장가들고 毛興窟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수년을 지내는 동안 산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후손이 차츰 커졌다.<sup>10)</sup>

이 기사에서 세 神女가 日本國 王女라 한 점은 『高麗史』 계통과 유사하나, 그 王女가 일곱이요, 그 중 넷은 丹狄國으로 가고 나머지 셋은 耽羅로 왔다는 점이 특이하여, 또 耽羅로 올 때 木船을 타고 왔다는 점이 색다르나, 高氏爲 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瀛洲誌」 계통과 유사한 것으로 칠 수 있다.

### 3. 折 衷 系

『高麗史』 계통과 「瀛洲誌」 계통의 기사들 절충하거나 그 외의 說들을 종합한 기록을 몇 개 보기로 한다. 이 부류에 드는 주요한 것으로 『編禮抄』와 金錫翼의 『耽羅紀年』을 들 수 있다.

「編禮抄」( 작자·연대 미상 )에는 『高麗史』의 기록과 거의 같은 문맥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다른 점도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세 神人이 솟아난 때가 後漢 明帝 永平 8年일 것이라는 것.
- ② 漂着해 온 세 神女가 東海碧浪國의 王女라는 것.
- ③ 세 神女를 태운 木函이 金塘 곧 지금의 朝天浦라는 것.<sup>11)</sup>

이들 중 ②와 ③은 『瀛洲誌』 계통의 기사와 같은 것이어서 두 계열의 기

10) 東文選 卷之一百一 鄭以吾撰 星主高氏傳. 原文: 耽羅之境 初未嘗有人 其山奇秀曰漢孛 宛在雲海渺茫之上 降其神靈和氣 化生神人于山之北毛興穴 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而高乙那即高氏鼻祖也 俱漁獵以爲食 譜云日本國主生女七人 遺四女于丹狄國 丹狄即所謂赤狄之種也 命其女三曰 西南海有山孕秀生神人三昆季 將建國無媿偶 若輩可往事之 後世子孫必繁衍盛多矣 乘之以全木船 兼備五穀牛馬之種 且使神人衛而送人 至耽羅 東海之濱 神子三人 出獵遇之 其衛護神人 乃紅靛紫衫者也 陵空而去 三子分娶之 卜毛興窟近地以居 數年間產業俱就 其後漸大……(下略)

사가 절충된 것임을 알게 한다.

1918年 金錫翼이 엮은 耽羅紀年에도 『高麗史』나 李元鎮 『耽羅誌』의 기록과 거의 같게 기록되어 있는데, 三神女의 나라를 碧浪國이라 하고, 그 註에 「地志에는 日本國이라 쓰여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 기록에는 여러 話素에 대한 諸說을 註로 收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毛興穴 : 濟州 남쪽 3里 썸에 있다. 혹 이르기를, 「毛」字는 「乙」字 위에 「三」字을 더한 것이므로 이는 三乙那가 일어난 穴이라 하여 毛興穴이라 함이다. (在州南三里 或曰毛字乙上加三 故指三乙那所興之穴 曰毛興穴)

乙那 : 혹 이르기를, 乙은 乙頭, 乙巴와 같은 類요, 那는 居西那와 같은 類로서 임금을 높혀 부르는 칭호라 한다. 또 이르기를, 乙那는 新羅의 赫居世의 칭호와 같은 것이라 하니, 모두 方言으로 임금이라는 말이다. (或曰乙如乙豆乙巴之類 那如居西那之類 尊君之稱 又曰乙那如新羅赫居世之稱 蓋鄉言王也)

三神人湧出 : 宋尤菴 時烈이 이르기를, 세 神人이 耽羅의 漢擎山에 내려와 섬을 나누어 다스리고, 新羅 때에 이르러 良氏를 梁氏로 고쳤다고 했다. (宋尤菴 時烈曰 三神人降于耽羅之漢擎山 分長一島 至新羅改良爲梁)

金楓阜祖淳이 이르기를, 良乙那가 漢擎山 石窟속에서 나와 檀君과 같은 때에 開國하고, 그 후 良宕이 비로소 新羅와 통했다고 했다. (金楓阜祖淳曰 良乙那生于漢擎山石窟中 與檀君同時開國 其後日 宕始通新羅)

- 11) 梁重海 著 參考. 原文 : 三姓穴 在州南三里廣濟高武亭(今無)東 品字向北 蓋三姓之出正當九韓之時 後漢明帝永平八年 紫氣浮於南海 三姓之出疑其時 國號七羅 新羅時稱耽羅 百濟時稱耽牟羅 本朝獻屆時稱濟州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自東海至濱 出置金塘今朝天浦 就而開之 內有石函 有紅帶紫衣使者隨來 開之有青衣處女三人及駒犢五穀種 乃云我東海碧浪國使者也 吾王生此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一徒 高乙那所居曰二徒 夫乙那所居曰三徒 播五穀牧駒犢 日就富庶

地理志에 이르기를, 三姓의 出生이 九韓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地志曰 三姓之出 正當九韓之時)

擇里誌에 이르기를, 漢明帝 永平八年 乙丑에 紫氣가 남쪽바다에 떠올랐으니, 三姓의 出生이 혹 그때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擇里誌曰 漢明帝永平八年 乙丑 紫氣浮於南溟 三姓之出疑其時歟)

高氏家譜에 이르기를, 三神이 솟아난 것이 漢宣帝 五鳳二年 乙丑이라 했다. (高氏家譜曰 三神湧出 在漢宣帝五鳳二年乙丑)

東海濱: 세상에 전하기를, 三乙那가 나라를 열 때 碧浪國 使者가 三神女를 모시고 延婚浦에 來泊했다 하니, 지금의 旌義縣 閱雲里가 그 곳이다. (世傳 三乙那開國時 碧浪國使者 奉三神女 來泊延婚浦 今旌義閱雲里是也)

1954年 淡水契에서 엮은 『增補耽羅誌』에도 이 『耽羅紀年』의 기록을 그대로 國漢文體로 번역하여 실고 있다. 위의 諸說들에는 學問的 견해들도 있지만, 民間傳承에 근거를 둔 것이 많아서 三姓神話에 관련된 많은 異傳이 있음을 알게 한다.

현재 무당굿의 초감제에서 노래 불러지는, 三姓開國에 관한 대목도 위의 諸異本과 관련이 있다. 한두 개만 예를 보자.

영평 팔년(永平八年) 을축(乙丑) 삼월 열사흘날 자시(子時) 생친 고의왕(高의 王), 축시(丑時) 생친 양의왕(良의 王), 인시(寅時) 생친 부의왕(夫의 王)고량부 삼성(三姓)이 모은골(毛興穴)로 솟아나 도읍(都邑) 흥던국(國)이웨다. .... 12)

영평 팔년(永平八年) 을축(乙丑) 삼월 열사흘날 자시(子時)에는 고의왕(高의 王), 축시(丑時)에는 양의신충(良의 臣), 인시(寅時)에는 복의면(夫

12)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唱. 玄容駱: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44.

의 民) 설립하던 섬이우다. 양의왕도 왕이노라, 북의왕(夫의 王)도 왕이노라, 성(兄)과 아실(아우를) 골리져 응(응) 호읍전, 고의왕은 할로영주(漢羅瀛洲山) 어싱생(御乘生岳) 단골머리(골머리봉) 쌀(矢)을 흔대 노니, 동이와당(東海 바다) 광덕왕 진도받졌고나. 양의신내(良의 臣下) 쏘은 쌀 서이와당(西海 바다) 광인왕 진도받졌고나. 북의면(夫의 民) 쏘은 쌀은 동문밧것(東門마깅) 사봉(紗羅峯) 넘어 쌀손거리 지었고나. 성(兄)과 아실 골릴 때에 고의왕은 왕이 되고, 양의는 신내(臣下) 되고, 북의면(夫의 民)은 면(民)이 설립하여 제주절도 설립 후데다.<sup>13)</sup>

십방에 따라서 약간씩 달리 口傳하지만, 永平八年 毛興穴에서 솟아난 三姓始祖가 활쏘기로써 君·臣·民의 序列을 정해 건국했다는 내용으로 노래 불려진다. 『瀛洲誌』 제열과 가까운 口傳인 것이다.

이상, 『高麗史』 제열과 『瀛洲誌』 제열, 그리고 그 절충 종합제열로 나누어 三姓神話의 내용을 보았는데, 이것들은 각각 여러 가지 口傳異說들을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4. 構成과 話素

이상 보아 온 『高麗史』 제열과 「瀛洲誌」 제열의 신화 내용을 종합하여 그 插話와 話素를 정리하기로 한다.

三姓神話는 두 제열의 異本이 모두 3개의 插話가 3段의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話素의 몇 개가 다른 것 뿐이다. 그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濟州市 三徒洞 男巫 金氏(戊午生) 1970年 陰 1月 17日 滙月邑 上貴里 당곳의 초감 제에서 唱. 筆者 調査.

三姓神話의 構成과 話素表

第一段(挿話) : 三神人의 出生과 生活 : 三神人이 땅에서 솟아나 수렵생활하다.

話素	高麗史系	瀛洲誌系
三神人出生	毛興穴에서 솟아나다	갈 음
序次	長: 良乙那, 次: 高乙那, 三: 夫乙那	長: 高乙那, 次: 良乙那, 三: 夫乙那
生活	수렵생활로 皮衣肉食하다	갈 음

第二段(挿話) : 三神女의 漂着과 婚姻 : 三神女가 바다로 띄오니 分娶하다.

三神女	日本國의 王女	東海 碧浪國의 王女
漂着한 處	東海濱 : 閔雲里(溫平里)	東海濱 : 金塘(朝天里)
渡來方法	木函 속의 石函에 담겨 떠 오다	木函 속의 鳥卵形 玉函에 담겨 떠오다
携帶物	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	갈 음
使者의 傳言	三神女를 배필삼아 建國하라 傳言하고 구름을 타고 가다	갈 음
分娶方法	나이 차례로 장가들다	갈 음

第三段(挿話) : 所居地 選定과 定着建國 : 所居地를 선정하여 農牧生活로 定着建國하다.

所居地選定方法	활을 쏘아 살 땅을 정하다	갈 음
所居地	良乙那 : 一徙, 高乙那 : 二徙 夫乙那 : 三徙	高乙那 : 一徙(一徙里) 良乙那 : 二徙(山房里) 夫乙那 : 三徙(土山里)
定着生活	五穀을 뿌리고 마소를 쳐서 날로 부유했다	갈 음
君臣序列建國		돌을 쏘아 勇力을 시험하여 上·中·下를 정하고 君·臣·民의 序列을 정하여 건국하다

### Ⅲ. 類型과 性格

이제까지 三姓神話의 내용을 異本別로 살펴 왔는데, 이런 유형의 설화는 三姓神話 하나 뿐인가, 아니면 제주도 내의 다른 설화에도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유사한가, 이 점을 비교 검토해 보면 三姓神話의 본래의 성격도 밝혀져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三姓神話의 각 插話別로 그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 1. 地中湧出 狩獵生活

三姓神話의 첫째 단은 三神人이 땅 속(毛興穴: 지금의 三姓穴)에서 솟아나 수렵생활을 했다는 插話다. 異本에 따라 그 三神人의 序次에 良·高·夫, 高·良·夫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들 氏族의 社會的, 政治的 勢力的 변동에 따라, 또는 그것을 기술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神話學的 側面的 考察에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地中에서 솟아난 三神人이 수렵생활을 한다는 話素가 중요한 뿐이다.

그러면 이런 話素를 제주도내의 어떤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話素는 제주도의 巫俗神話인 堂神본풀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A. 松堂본풀이 : 알송당(旧左邑 松堂里) 고부니물에서 솟아난 소로소친국(男神)이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백जू도(女神)을 맞아 부부가 되어 사냥하며 산다.

·아들을 많이 낳아 살림이 어려우므로 부인의 권유에 따라 농사를 짓는다.

소친국은 넓은 밭을 갈다가 배가 끓으자, 밭 갈던 소와 이웃밭에 풀을 뜯는 소까지 잡아먹어 요기를 면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부부가 이별한다.<sup>14)</sup>

B. 好近里本郷堂本풀이 : 애비국하로산도(男神)가 할로영산(漢擎靈山) 설명옥

14) 玄容駢; 뒷책, pp. 636 ~ 649.

- 땅에서 을축 삼월 열사흘날 자시(子時)에 솟아났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시오름>에 와서 보니, 사슴이 줄을 지어 내려가는 것이 보이므로 그것을 잡아 간회를 내어 먹으며 西掃浦市 好近里까지 내려와 堂神이 되었다.<sup>15)</sup>
- C. 沙溪里 큰물당본풀이 : 큰물당神은 할로영산(漢擎靈山) 서쪽 어깨로 솟아나 노루 사슴을 몰아서 山房山까지 내려와 山房山의 이 꼴 저 꼴을 몰아다니다가 <당물>에 와서 잡아 피를 빼 먹고 좌정할 곳을 정하여 堂神이 되었다.<sup>16)</sup>
- D. 柑山里 호근이마루 여드랫당본풀이 : 이 당신은 한라산에서 솟아난 <제상곡 하로산>인데, 산살피(山獺皮) 감투를 쓰고 황갈피(黃狍皮) 발레를 신고 마새조총(馬上鳥銃)을 둘러메고 사냥개를 데리고 하여 심심상중에 올라가 노루 사슴을 잡아 간회를 내어 먹으며 살던 神이다.<sup>17)</sup>
- E. 다리콧本鄉堂본풀이 : 이 당신은 산신백관 산신대왕인데, 노루 사슴을 좋아해서 사냥을 다니다가 다리콧(濟州市 月坪洞) <신데기마루>에 내려와 보니, <강남목골 미양산산 너븐드르 대십머들 송핏골>에서 솟아난 <은기선생 늦기선생>을 만나 부부가 되어 堂神이 되었다.
- F. 舊左邑 細花本鄉堂본풀이 : 이 당신은 천긋도, 뱃긋도, 금상님 세 위인데, 천긋도는 할로영산(漢擎靈山) 백록담(白鹿潭)에서 솟아난 文武兼備한 神이고, 뱃긋도는 서울 서대문 바깥에서 솟아난 임정국 따님아기로서 용왕국에 들어가 갖가지 주술을 배워 온 女神인데, 천긋도의 외손녀이다. 한편 금상님은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武將인데, 역적으로 몰려 제주에 들어와 백긋도와 결혼하여 당신이 되었다.<sup>18)</sup>
- G. 南元邑 禮村本鄉堂본풀이 : 이 당의 신은 할로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 강남천 즈국에서 솟아난 도원수,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서 세 위이다.<sup>19)</sup>
- H. 南木里本鄉堂본풀이 : 이 당신은 할로영산 서남쪽 백록담에서 솟아난 ㅂ르못도인데, 禮村本鄉堂神들과 바둑내기를 하여 형제를 가리는데 저서 동생이 되어

15) 윗책, pp.744 ~ 746.

16) 윗책, pp.772 ~ 773.

17) 윗책, pp.767 ~ 770.

18) 윗책, pp.661 ~ 676.

19) 윗책, p.736.

西婦邑 甫木里 堂神이 되었다.

- I. 檣達本鄉堂本풀이 : 한로영주삼신산(漢擎瀛洲三神山) 서쪽 어깨 소못된 밭에서 을축(乙丑) 삼월 대보름날에 아홉 형제가 솟아나니, 그들은 각각 마을로 내려와 城山邑 水山里, 涯月邑 水山里, 南元邑 禮村, 西婦浦市 好近里 中文里, 檣達里, 下狝里, 通泉洞, 大靜邑 日果里 堂神이 되었다.<sup>20)</sup>
- J. 上倉하르방당본풀이 : 한로영주삼신산 上峯 서쪽 어깨에서 乙丑 三月 열사흘 날 酉時에 아홉성제가 솟아나니, 上倉하르방당의 神은 그 중 여덟째 농생이다.<sup>21)</sup>

위 예들은 각각 堂神본풀이의 일부를 요약한 것인데, 그 특성은 男神들이 漢擎山, 松堂 등 島內的 어느 신성한 곳에서 솟아나는 점과 사냥을 하여 생계를 삼는 점 등이다. 그리고 그 湧出日字가 밝혀진 것은 乙丑 3月 13日이거나 3月 보름날로 되어 있다. 神들이 땅 속에서 솟아난다는 話素는 이 외에도 朝天面 北村, 朝天面 善乾, 舊左邑 杏瀾, 漢東里 堂神본풀이<sup>22)</sup> 등에 무수히 발견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三姓神話의 三神人이 땅 속에서 湧出하여 수렵생활을 했다는 插話가 바로 제주도내의 堂神본풀이와 같은 유형임을 알게 한다. 그리고, 宋時烈이 말하기를 「三神人이 漢擎山에 탄강하여 섬 전체를 차지했다」든지, 金祖淳이 말하기를 「良乙那가 漢擎山 石窟 속에서 나왔다」라든지, 『擇里誌』에 三神人 湧出이 『漢明帝 永平八年 乙丑이 아닌가』 한 것이라든지, 高氏家譜에 「三神 湧出이 漢宣帝 五鳳二年 乙丑이라」고 한 것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異傳 口承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한다.

## 2. 三神女 漂着 婚姻

三姓神話의 둘째 단락은 三神女가 바다로 떠 오니, 三神人이 각각 分娶했다는 插話다. 이 插話는 異本에 따라 조금씩 다른 話素로 이루어져 있다.

20) 뒷책, p.750.

21) 뒷책, p.762.

22) 뒷책, 해당항 참조.

『高麗史』系에는 日本國 王女 세 사람이 木函속의 石函에 담겨 關雲里 (지금의 城山邑 溫坪里) 해변에 떠 왔다고 되어 있고, 『瀛洲誌』系에는 東海碧浪國 또는 碧浪國 王女 세 사람이 木函 속의 鳥卵型 玉函에 담겨 金塘 (朝天面 朝天里) 해변에 떠 왔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①日本國과 碧浪國, ②關雲里와 金塘, ③石函과 鳥卵型 玉函 중에 각각 어느 쪽이 원형이나 하는 것이다.

첫째, 日本國과 碧浪國의 문제. 이것은 碧浪國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 본다. 日本國은 實在의 나라이지만 碧浪國은 非實在의 상상의 나라다. 朝鮮朝 英祖 때 北濟州郡 涯月邑 出身 張漢喆이 지은 『漂海錄』에 보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있다.

「日本の 對馬島는 漢孛山の 동북에 있고, 壹岐島는 正東에 있고, 女人國은 동남에 있다. (中略) 靑州 荒州는 漢孛山の 서북에 있다. 이상 여러 나라는 다 耽羅와 隔하여 멀리 떨어져 거리가 몇 千萬里 되는지 모른다. 그중 가장 먼 것은 東海의 壁浪國이니, 日本의 동쪽에 있고, 巨人島는 壹岐島의 동남쪽에 있다. 人跡이 통하지 않아 政教가 미치지 못하니, 이는 隔世의 別界다.」<sup>23)</sup>

張漢喆은 이처럼 적고, 또 碧浪國에 대해서는 「옛적 耽羅에 人物이 없을 때 三乙那가 비로소 下降했으나 그 짝이 없으므로 壁浪王이 三女를 보내어 혼인하게 했다 한다. (在昔 耽羅無人物 三乙始降 未有配耦 壁浪國王妻之以三女云)」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보아도 三姓神話의 碧浪國이 女人國, 巨人國과 더불어 상상의 나라임을 이해하게 된다.

碧浪國은 본래 순 우리 말로 된 이름을 漢字表記한 것임에 틀림없다. 「碧浪」은 변화하기 쉬운 母音을 빼고 보면 /p~r~ŋ/ 형이 된다. 한편, 「바다 (海)」의 現代濟州方言은 「바당」이요, 15世紀 中部地方語는 「바툼」이다. 「바당」은 濟州方言에 흔히 붙는 /-ŋ/ 接尾辭가 「바다」에 붙는 형

23) 張漢喆; 『漂海錄』, 『人文科學』 6, 延世大學校 文科大學, 1961 所收. 26日錄.  
原文: 日本之對馬島在漢孛山之東北 壹岐島在正東 女人國在東南 (中略) 靑州荒州在漢孛山之西北 以上諸國皆與耽羅 隔海絕遠 不知其當距爲幾千萬里 其最遠者 東海之壁浪國 在日本之東 巨人島在壹岐之東南 人跡不通 政教不及 自是隔世之別界也.

태이니, 이 接尾辭를 「바물」과 같은 15世紀 이전의 濟州方言으로 거슬러 올려 붙여서 再構한다면, 「바룻」 내지는 「바랑」과 유사한 말이 될 것이다. 現代濟州方言에도 「바룻궤기(海魚)」 「바르잡다(漁撈하다)」와 같이 「바르」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再構는 가능한 것이 된다. 즉,

現代中部地方語 /p~d~/, 15世紀 中部地方語 /p~r~l/

現代濟州方言 /p~d~ŋ/, 15世紀 濟州方言 /p~r~ŋ/

과 같이 對應되는 것이다. 하고 보면 「碧浪國」은 「바다나라」 곧 「海國」을 의미했던 말이라 추정되며, 東海上의 상상의 나라였음을 알게 한다.

이제는 다시 日本國과 碧浪國의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다음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많은 堂神話에 女神들이 石函에 담겨 제주도에 漂着하는 話素, 또는 碧浪國과 같은 東海의 想像國의 王女와 濟州에서 솟아난 男神이 혼인하는 話素 등, 三姓神話와 같은 話素가 많은 것으로 보아 碧浪國이 本來的인 것이라 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 日本國이라 한 것은 合理的인 思考에서 東海에 있는 實在의 나라로 比定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東海의 想像國의 세 王女가 石函에 담겨 떠 오니, 三神人이 각각 分娶했다」라는 插話로 정리되는데, 이와 유사한 것을 巫俗神話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칠성본풀이 :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 사이에 태어난 딸이 중한 데 임신한다. 부모가 石函에 담아 동해바다에 띄워 버리니, 石函은 제주도의 朝天面 威德里 바닷가에 표착한다. 해녀들이 이를 반전하고 열어 보니 뱀이 여덟 마리가 기어 나왔다. 石函 속에서 七女를 뱀의 몸으로 낳고 어머니 자신도 뱀으로 變身한 것이다. 이 뱀들이 바로 칠성神이다.<sup>24)</sup>
- B. 月汀本郷堂 본풀이 : 황토고을 황정승이 절간에 祈子하여 딸을 하나 낳았다. 딸은 부모가 정승벼슬 살러 가는데 쫓아가다가 도중에 떨어져 뱀으로 변신한다. 부모가 돌아와 뱀으로 변신한 딸을 石函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린다. 石函은 朝天面 北村里에 떠올라 오고 김침지영감이 이를 반전하여 열어 보고 모시기

24) 玄容駁; 嶺峽, pp.419 ~ 431.

시작하니, 이것이 旧左邑 月汀里 本郷堂神이다.<sup>25)</sup>

- C. 金寧 靛내깃당본풀이 : 松堂神 소소친국의 여섯째 아들이 불효하므로 石函에 담아 동해바다에 띄워 버렸다. 石函은 東海龍王國에 漂着하고, 이 아들은 東海龍王國에 들어가 龍王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이 사위가 하도 食性이 과다하여 먹일 수 없으므로 龍王은 사위와 딸을 다시 石函에 담아 띄워 버렸다. 石函은 濟州島에 표착하고, 부부는 나중에 金寧 靛내기堂神이 되었다.<sup>26)</sup>
- D. 新豊·下川本郷堂본풀이 : 松堂神 소친국의 셋째 아들 개로육서또가 불효하므로 石函에 담에 東海龍王國에 귀양을 보냈다. 石函은 東海龍王國 황정승집의 산호나무 가지에 걸리고, 개로육서또는 황정승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그런데 개로육서또가 하도 식성이 과다하여 먹일 수가 없으니, 황정승은 사위와 딸을 다시 石函에 담아 띄워 버렸다. 石函은 제주도에 표착하고, 이 부부는 新豊·下川里의 本郷堂神이 되었다.<sup>27)</sup>
- E. 中文本郷堂본풀이 : 漢驛山 서쪽 어깨 소뭇뿔밭에서 乙丑 3月 대보름날에 9형제가 솟아났는데, 그 중 다섯째 아들이 中文里堂神<중문이 하로산>이다. 이 神의 아들이 부모 눈에 거슬리어 石函에 담겨 싱겨물로 바다에 띄워 버림을 당했다. 石函은 東海龍王國 황정승집 산호나무 가지에 걸리고, 아들은 황정승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그런데, 이 사위가 식성이 과다하여 먹일 수가 없으므로 황정승은 사위와 딸을 石函에 담아 띄워 버렸다. 石函은 다시 싱겨물에 떠 오르고, 부부는 中文里本郷堂의 부모에게 가서 사죄하고 같이 살다가 불목당에 갈려 나와 불목당신이 되었다.<sup>28)</sup>

예는 이만큼으로 줄이기로 하거니와, 이 예들을 보면 모두 石函에 담겨 漂着하는 점이 공통하다. A와 B는 女人이 뱀의 몸으로 변신하여 石函에 담겨 표착하는 것들이고, C, D, E는 제주도내에서 솟아난 男神이 石函에 담겨 東

25) 원책, pp. 649 ~ 655.

26) 원책, pp. 636 ~ 647.

27) 원책, pp. 693 ~ 698.

28) 원책, pp. 753 ~ 758.

海龍王國에 떠 가고, 龍王의 딸(또는 정승의 딸)과 결혼하여 부인을 데리고 石函에 담겨 제주도 표착하는 事例들이다. 이 事例들은 濟州島의 巫俗神話에 石函漂着話素가 일반적이요, 또 東海龍王國 王女 등 東海의 想像國의 王女와 島內의 어느 곳에서 湧出한 男神이 결혼한다는 話素가 많음을 말해 준다. 위의 이야기들을 三姓神話와 비교해 볼 때 이들 이야기에는 男神이 東海의 想像國에 가서 王女와 결혼하고 돌아오는데 비해 三姓神話는 東海 想像國의 王女가 표착해 와서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다르다. 이 차이는 婚姻方式에 있어 夫方居住制와 妻方·夫方居住制의 反影의 差異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觀念의 發想인 것이다. 하고 보면 三姓神話의 이 挿話도 제주도의 堂神본풀이와 같은 유형의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瀛洲誌』에 세 王女가 石函이 아닌, 鳥卵型 玉函에 담겨 떠 왔다는 表現은 제주도 說話의 일반적 話素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 표현은 石函이 玉函으로 美化되고 거기에 「鳥卵型」이라는 수식이 더해진 것이다. 이 수식은 우연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것은 필시 卵生型 神話에서 借用 變異된 것일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神인이 일에서 出生했다는 卵生型 話素는 韓國의 南部地方에서부터 北部地方에까지 分布되어 있다. 駕洛國의 金首露王, 新羅의 朴赫居世, 脫解, 金關智, 그리고 高句麗의 朱蒙이 다 알 속에서 출생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알 속에서 나왔다는 話素의 영향을 받아, 卵生話素에다 石函話素가 복합되자 그것이 「鳥卵型 玉函」에서 나왔다는, 美化된 표현으로 된 것이라 볼 것이다.

둘째, 三神女의 漂着地가 閔雲里(城山邑 溫平里) 또는 金塘(朝天面 朝天里)으로 되어 있는 異本은 무엇에 말미암은 것인가? 이것도 이 마을의 堂神話를 보면 풀려나갈 여지가 있다.

먼저 溫平里의 당본풀이를 보자.

신디랫빌레 고장남밭 좌정흔 맹호부인 맹호안전. 난시본산국은 서월 정기땅의 서 식성제(三兄弟)가 솟아나니, 계수남배(桂樹木船)를 타고 재주섬 구경오라(구경와) 조천(朝天里)으로 들어오난(들어오니), 큰부인은 조천관(朝天館) 정중밭더 정중부인, 셋성님(仲兄)은 집녕(金寧) 관세전부인, 작은부인은 맹

호부인.

죽은부인 신더렛빌레 고장남밭 오라 좌정하여 이신디, 누계 허나 먹으라 씨라  
아니 허난 문씨영감(文氏令監) 안티 풍문조화(風雲造化)를 주나네(주니까) 문  
씨영감이 홑일곱살(單七歲) 나도록 견도 기도 못허연 구덕(아기구덕)에서만  
살다네(살다가) 만국(萬穀) 시월 초흘날(初一日) 개암용머리로 홀연히  
돌아나 바당(海)에 들어가니, 훗단 훗단 못춧아 기냥 내여부난, 시월 초일렛날  
(初七日)은 밤도 일뤼 닛도 일뤼 물에 살단 흔착(한쪽) 손에 유리잔, 흔착  
손엔 유리대, 삼뎡뒤(巫具: 신칼·산판·요령)를 췌여아전(췌어서) 열문이(溫  
平里) 바당 황노알로 솟아나, 문씨영감이 그영신내(專屬巫)를 허연 단풀이 뒤  
엿단(되엇다가) 죽으니, 남름 우로 들어서 앞원 삼천백매 뒤엔 일만초깃발.

남는 날은 생산 죽은 날은 물고(物故) 호저 장적(戶籍帳籍) 츠지허던 본  
향(本鄉) 한집. 열문이(溫平里) 신산이(新山里) 양막술(兩里) 츠지헌 본  
향한집.<sup>29)</sup>

이 본풀이는 세 姉妹가 서울 정기땅에서 솟아나 朝天面 朝天里로 들어와 朝  
天里, 舊左邑 金寧里, 그리고 溫平里의 堂神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溫平里 堂  
神 멩호부인이 승앙을 받기 위해 문씨영감에게 凶驗을 주어 巫具를 주워 오게  
하니, 문씨 영감이 專屬司祭巫가 되어 위하다가 그도 죽은 후 神으로 모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한편, 異傳에 따르면 대국 명나라 명친즈의 손녀 삼형제가 역적에 몰려 귀  
양을 보내니, 배를 타고 溫平까지 와서 堂神이 되었다고도 한다.<sup>30)</sup>

이들 본풀이는 三神女의 出生國이 <서울 정기땅> <대국 명나라> 등 차이  
가 있으나, 三神女가 바다로 표착해 왔다는 점에서 三姓神話의 三神女 漂着과  
一脈相通하는 점이 있다.

溫平里 堂本풀이와 관련된 金寧 큰당의 본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9) 城山邑 新山里 女巫 金永善 口誦. 嶺南, pp. 688 ~ 689.

30) 秦聖獻; 『南國의 巫歌』, 1968, 프린트版, pp. 555 ~ 556.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 정조국 안까름(內洞)서 솟아나신 삼형제가 제주입도(入島)해야, 큰성님은 조천관압선도 정중부인이고, 중형님은 김녕 관세전부인 계세전부인, 하늘공저 소공저, 아늑 버은 금책에 쫄이 버은 금붓대 삼친장베릿돌(硯石). 낳는 날은 생산을 츠지하고 죽는 날은 물고(物故)를 츠지하고, 정월 열사을날(十三日) 열나을날 아침 대제일(大祭日)을 받고, 칠월 열사을날 열나을날 아침 마불림대제일 받고, 구월 열사을 열나을날 시만국대제일을 받습고, 만민달풀덜이 삼대제일로 위 하는 신당입네다.

족은아시(작은아우) 열눈이(溫平里) 고장남밭 좌정호신 맹호부인입네다.<sup>31)</sup>

이 본풀이도 세 姉妹의 出生國이 江南天子國이라 하는 것이 다를 뿐, 朝天, 金寧, 溫平里 堂神이라는 系譜는 一致한다. 이로써 보면, 朝天里 堂神 <정중부인>의 來歷譚도 같은 系譜의 것이 傳承될 법 한데, 朝天里에는 이 系譜를 설명하는 본풀이가 전승되고 있지 않다. 기껏해야 「정중부인 정중아미 서울 먹장골서 솟아난 정중도령」 정도의 神名列舉만이 전한다.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가 잊어진 것인 듯하다.

이상의 본풀이에서 보면 그 出生國이 서울, 명나라, 江南天子國 등으로 다름이 있으나 海外的 나라(단분히 想像國의인 곳)에서 三神女가 표착해 와서, 朝天里, 金寧里, 溫平里의 堂神이 되었다는 一致된 傳承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三神女 漂着傳承이 三姓神話의 三神女 漂着話素와 無關한 것이라 할 수 없다.<sup>32)</sup>

이러한 사정의 이해에는 이 마을의 口傳傳說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溫平里에 전하는 三姓神話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① 세 神人이 수렴을 하며 溫坪里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다로 石函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귀중한 것이 떠오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일제히 채성을 질렀다. 그래서 溫坪里 바닷가 이름을 「채성개」라고 한다.

31) 濟州市 隄入洞 男巫 李達春 口誦. 玄容駿, 1980, 硯책, pp.635 ~ 636.

32) 이들 당본풀이와 三姓神話의 三神女漂着傳承이 깊은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점은 梁重海氏도 이미 지적한 바이다. 梁重海, 위 논문, pp.67 ~ 72.

- ② 세 神人이 바닷가로 내려가니, 石函이 물으로 떠올라 왔다. 石函이 떠올라 왔다 하여 이 곳을 「오통」이라 한다.
- ③ 石函이 떠올라 올 때 使臣이 말을 타고 먼저 올라오고 이어서 세 처녀가 오곡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이끌고 올라왔다. 使臣이 말 발자국이 지금 바닷가 바위에 찍혀져 있으니, 여기를 「물성개」라 한다.
- ④ 溫坪里 남쪽에 있는 「흰죽」이라는 못에 세 神人과 처녀들이 가서 목욕하고 혼인하니 여기가 「혼인지」다.
- ⑤ 혼인지 바로 옆에 굴이 있는데, 여기는 세 神人이 혼인하고 잠을 잔 곳이라 한다.<sup>33)</sup>

梁重海氏가 조사한 전설도 이와 大同한데, 「세 神人是 혼인하고 살면서 나무에 오르기와 활쏘기로 재주를 겨루어 형제의 순위를 매겼다」는 話素가 더 붙어 있다.<sup>34)</sup>

이 전설들은 주로 地名傳說로 화하여 斷片的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세 神女の 漂着과 그 婚姻에 대한 證據物이 날날이 제시되고 있어, 三神女の 閔雲里(溫平里) 漂着傳承이 古來로부터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런데 이 전설과 이 마을의 堂神 맹호부인 본풀이와 대조해 보면 전자에는 婚姻의 話素와 형제를 가린 話素가 있는데 비해 후자에는 이것이 없다. 그러나 바다로부터의 漂着 話素나 三姊妹의 系譜話素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서로 관련된 異傳이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朝天面 朝天里 金塘浦에도 三神女の 漂着傳承이 있을 법 한데, 〈금당〉못은 현재 있어도 그러한 전설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溫平里에는 漂着했다는 記錄과 婚姻했다는 못이 있고 또 그 전설이 있으니, 朝天里에도 漂着했다는 記錄이 있고, 金塘이라는 記錄上的 못이 현재도 있는 것으로 보아 朝天里 金塘에도 溫平里의 혼인지 전설과 비슷한 傳承이 어느 시기까지는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33) 玄容駿; 『濟州島傳說』, 1976, 瑞文堂, pp.37 ~ 38.

34) 梁重海, 위 논문, p.63.

이렇게 보면 三神女の 漂着傳承은 城山邑 溫平里와 朝天面 朝天里 두 곳에 전승되고 있었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堂神話로 정착하고, 한편으로는 婚姻話素를 결부시켜 三姓神話를 形成시키기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뒤에 논하는 바와 같이 地中湧出神과 海上漂着神의 이야기는 각각 따로 전파되다가 濟州島에 와서 結合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보아, 石函에 담겨 漂着해온 三神女の 婚姻插話도 巫俗 堂神話와 有關한 유형임을 알게 된다.

### 3. 射矢卜地 所居地 選定

三姓神話의 셋째 단락은 활을 쏘아 所居地를 정하여 農牧生活을 시작하고, 君·臣·民의 서열을 정하여 建國했다는 插話다.

이 插話에도 다소 다른 기록이 있으니, 『高麗史』系에는 그 所居地가 현재의 濟州市 一徒洞·二徒洞·三徒洞이라 하고 있음이 확실한데, 「瀛洲誌」계 기록에는 第一都是 濟州市 一徒洞, 第二都是 山房里(현재의 安德面 德修里인 듯), 第三都是 土山里(表善面 兎山里)라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前者가 원형이라 보인다. 이유는 古代 氏族 내지 部族國家가 初期에 全島의 廣域에 걸쳤을 리가 없고, 또 현재 一徒·二徒·三徒의 地名이 濟州市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山房里(大靜縣), 土山里(旌義縣)로 기록한 것은 後代의 變異로, 濟州·大靜·旌義, 三縣 區分이 된 후, 三神人이 全島를 分掌한 것처럼 기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해야 한다. 그러면 所居地를 활을 쏘아 정하는 話素가 堂神話에도 있는지를 보자.

- A. 西歸·東烘本鄉堂본풀이: 비씨영감 븐르뭇도가 흥토나라에 다니다가 천하미색을 발견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사위로 들게 되었다. 장가를 들고 보니, 부인은 추색인 고산국이고, 처음 발견한 천하미색은 그의 처제 지산국임을 알았다. 븐르뭇도는 어느 날 처제를 데리고 제주 한라산으로 도망왔다. 이를 안 처 고산국이 곧 뒤쫓아 와서 다투기 시작했다. 세 부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뽕개질<sup>35)</sup>을 하여 좌정할 곳을 정하여 갈리기로 했다. 큰부인 고산국은 뽕개질을 하니 흥리(東烘里) 안가름 혹은 돌이 떨어지고, 브르뫼도는 뽕개질을 하니 西掃浦 문섬 한도에 돌이 떨어졌다. 그래서 고산국은 자기 뽕개가 떨어진 곳 西烘里 지경을 차지해 가고, 브르뫼도와 지산국은 東烘里와 西掃里를 차지해 갔다. 이 후로 이 두 마을 사이에는 사이가 나빠 서로 혼인도 하지 않는다.<sup>36)</sup>

B. 上貴本鄕堂본풀이 : 옛날 송씨할마님이 소국에서 제주도 한라산으로 귀양을 왔는데, 上貴里의 강씨할마님이 미인이 왔음을 알고 쫓아갔다. 송씨할마님은 어스승(御乘生岳)에서 화살 한 대를 놓으니 上貴里 보로미동산에 떨어지므로 여기에 와서 좌정하려 했는데, 날땃냄새가 나서 좋지 않았다. 다시 뒤로 강씨할마님이 쫓아오므로 또 화살 한 대를 놓으니, 지금의 당이 있는 황다리케 뒷밭의 돌에 맞았다. 그래서 <살맞인들>이라 부른다. 송씨할마님은 화살이 떨어진 이 밭에 와서 황다리케의 만년 팽나무 아래에 좌정하여 上貴里 本鄕堂神이 되었다.

C. 安德面 德修里 광정당본풀이 : 큰형님은 濟州市 과양당신이고, 둘째는 旌義 서낭당신이고, 막내는 大靜 광정당신이다. 세 형제가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가르는데, 큰형님이 활을 쏘니 旌義・大靜 경계에 떨어져 그 경계를 가르고, 둘째 형이 쏘은 화살은 모관(濟州)・旌義 경계를 가르고, 막내동생 쏘은 화살은 모관・大靜 경계를 갈랐다. 그래서 큰형님은 과양당에 좌정하고, 둘째형은 서낭당에 좌정하고 막내동생은 광정당에 좌정하여 모관(牧安:濟州)旌義・大靜을 각각 차지했다.<sup>38)</sup>

D. 上倉하르방당본풀이 :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 乙丑 3월 열사흘날 酉時에 솟아

35) 긴 노끈을 접어 점친 끝부분 사이에 돌을 끼어 넣고 노끈을 쥐어 돌리다가 돌을 멀리 날려 보내는 일.

36) 玄容駿; 1980, 뒷책, pp. 738 ~ 741.

37) 1970年 陰 1月 17日 濟州市 三徒洞 男巫 金氏(戊午年) 上貴本鄕堂곳에서 唱한 要旨. 筆者調査.

38) 玄容駿; 뒷책, 774 ~ 775.

난 9형제 중 여덟째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8월 열사을날 할라산을 출발하여 붉은오름에 오고 보니, 무둥이왓(東甕里) 堂神 황서국서가 억만군병을 거느려 나서고 있었다. 두 神은 활을 쏘아 서로 기능을 다투었다. 황서국서가 화살 하나를 쏘니 백만군사가 하꺼번에 쓰러졌다. 다시 하나를 쏘아 쓰러져 누운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화살 하나를 쏘면 백만 군사가 한꺼번에 쓸러졌다가 다시 하나를 쏘면 그 군사가 다시 일어나고 자유자재였다. 그래서 황서국서가 항복하여 군졸이 되고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上倉里 통천 당동산에 가 좌정하여 堂神이 되었다.<sup>39)</sup>

위 例에서 A는 뽕개질로, B는 활쏘기로 차지할 마을과 좌정할 곳을 정한 예이고, C는 활쏘기로 濟州·大靜·旌義 三縣을 구획지워 차지한 이야기이며, D는 활쏘기로 上下 序列을 가린 이야기다. 이 이야기들은 활을 쏘아 所居地를 정한 三神人의 경우와 一致할 뿐 아니라, 돌을 쏘아 勇力을 시험하여 上中下 序列과 君臣民 序列을 정했다는 話素와도 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三姓神話의 插話들이 巫俗神話인 堂神본풀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三姓神話는 본래 堂神插話와 같은 유형이요, 高·良·夫 三姓氏族의 祖上神 본풀이인 동시에 이 祖上神을 모셨던 堂의 본풀이의 性格의 神話라 할 수 있다.

만일 이 추론이 맞는 것이라면 三氏族은 이 神의 信仰集團氏族이 되며, 오늘날 여러 堂의 信仰氏族을 上단골·中단골·下단골로 그 계층이 갈려져 있듯이, 良·高·夫, 또는 高·良·夫 어느 序列로 上단골·中단골·下단골의 계층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 보아 좋겠다. 이 계층은 時代에 따라 氏族의 세력에 따라 변동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39) 枕羅, pp.762 ~ 765.

## Ⅳ. 形成과 系統

이제까지 제주도 내의 설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三姓神話가 巫俗의 堂神話와 같은 유형의 것임을 밝혔거니와, 이번에는 눈을 밖으로 돌려 어느 쪽의 어떤 설화가 傳播해 와서 三姓神話가 형성되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 傳播의 追求도 三姓神話의 전체적 結構와 유사한 설화를 周邊民族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挿話別로 찾아 나가는 방법을 쓰기로 한다.

### 1. 地中湧出始祖神話

始祖가 땅 속에서 솟아나왔다는 이야기는 三姓神話를 제외하면 韓國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특이한 話素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日本의 九州 南部에 그 흔적이 보이고, 沖繩, 臺灣 쪽으로 가면 꽤 많이 발견된다.

九州: 옛날 神功皇后가 우시카미네(船馬峰)에서 활을 쏘았더니 화살을 맞은 땅 속에서 이상한 검은 놈의 머리가 내다보이므로 활끝으로 땅을 파헤쳐 보았더니 남녀 각 1사람이 나왔다. 이를 神人이라 해서 우대했는데, 그 자손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들을 頭黒(가시라구로)라 부르니, 이는 처음 땅에서 파내어질 때 검은 머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다.<sup>40)</sup>

이 이야기는 神人 男女가 땅속에서 出現했다는 話素의 殘影을 보여 주는 것인데, 沖繩의 남쪽 宮古諸島에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한다.

40) 13世紀(鎌倉時代)의 책 『塵袋』 卷七에 있는 이야기. 大林太良; 「琉球神話と 周邊民族神話との比較」, 『沖繩の民族學的研究』, 日本民族學會, 1973, p. 369.

**宮古諸島 始祖神話**：上古에 古意角(고이쓰누)라는 男神이 天神의 명을 받아 하늘에서 土砂를 가지고 내려와서 섬을 만들고, 姑依玉(고이다마)라는 하늘의 女神을 데려다 부부가 되어 아들 宗達(스다데이)神과 딸 嘉玉(요시다마)神을 낳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이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男女神이 나타나니,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땅 속에서 化生하여 부모가 없다」고 하므로 遊樂神이라 했다. 이들 중 男神은 紅葉으로 몸을 두르고 있었으므로 木莊(기소오)神이라 하고, 女神은 靑葉으로 몸을 두르고 있었으므로 草莊(후사소오)神이라 이름했다. 古意角, 姑依玉 두 神은 매우 기뻐해서 草莊神을 宗達神과 결혼시키고 木莊神을 嘉玉神과 결혼시켰는데, 이 두 부부의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하여 자손이 번창하니, 이들이 宮古島의 始祖인 것이다.<sup>41)</sup>

이 神話는 天降始祖神話와 地中出現始祖神話가 結合된 이야기인데, 男女 二神이 地中出現했다는 話素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神羅 八重諸島 始祖神話**：〈아망神〉이 日神의 명을 받아 하늘의 七色다리 위에서 바다에 土石을 던져 넣고 槍矛로 휘저어 섬을 만들었다. 이것이 八重山의 섬들이다. 섬에는 阿檀나무가 무성할 뿐, 사람도 동물도 없었다. 그 후, 神이 사람의 씨를 阿檀나무 숲 속의 땅 구멍에 내려 보내니, 그 구멍에서 남녀 두 사람이 출현했다. 그들은 남녀의 性關係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었으므로 神은 두 사람을 못가에 세우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못을 돌도록 했다. 못가를 돌다가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부부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뒤에 三男二女를 낳고 八重山の 始祖가 되었다.<sup>42)</sup>

이 神話는 男女 二神이 地中에서 出現한 점, 그리고, 특히 男女 二神이 못가를 반대방향으로 돌다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話素가 주목된다. 三姓神話의 혼

41) 乾隆戊申(1748)에 쓰인 『宮古島舊史』의 기록 요지. 大林 穰著 pp.320~321.

42) 八重山歷史編纂委員會編; 『八重山歷史』, 1954, pp.21~22.

인한 곳이라는 데가 못이라는 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三姓神話에 관련된 전설에는 현재 못에서 목욕하고 결혼했다는 後代的 話素만이 전하는데, 이 八重山始祖神話의 결혼방식처럼 본래는 못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만나 결혼한다는, 결혼방식의 話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男女가 서로 반대방향을 돌다가 만나 결혼하는 話素는 東兩亞의 近親婚神話에 흔한 것이다.<sup>43)</sup>

**臺灣 부눈族 于卓萬蕃**: 太古 〈민동곤〉이라는 곳에 두 개의 구멍이 있었다. 루루핫스루라는 벌레가 똥을 둥글게 해서 그 구멍에 집어넣었는데, 15일쯤 지나서 한쪽 구멍에서 남자가 출현하고 다른 구멍에서 여자가 출현했다. 두 사람이 성장하여 부부가 되고 4남매를 낳았는데, 이들이 서로 결혼해서 점차 인간이 불어났다.<sup>44)</sup>

**臺灣 다이알族 바스고와란蕃**: 옛날 〈빈사바칸〉이라는 곳에 斷崖가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두 개의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부터 男女가 나왔다. 두 사람은 금파리에게서 生殖의 법을 배우고 자손이 번창했는데, 어느 해 친지가 鳴動하고 대풍수가 일어나 사람들은 〈팻파크〉라는 곳으로 피난했다. 물이 줄어든 후, 故土 〈빈사바칸〉으로 돌아온 자들이 지금의 사이세쓰族의 조상이고, 〈팻파크〉에 남은 자들이 다이알族의 조상이 되었다.<sup>45)</sup>

**臺灣 다이알族 汶水蕃**: 태고적 〈파아팻파아〉라는 곳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 한 구멍으로부터 남자가 나오고, 다른 한 구멍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두 사람은 각기 자기 혼자 뿐인 줄 알고 먹을 것을 구해 산중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같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어느날 남자가 여자의 사타구니에 오목한 곳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자는 「이것은 바위 속에서 나올 때 입은 상처이니 건드리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며칠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끝내는 交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손이 번식해서 溪流를 따라 사방으로 이주해 갔다.<sup>46)</sup>

43) 大林; 1973, p.332.

44) 佐山融吉 大西吉壽; 『生蕃傳説集』, 臺北 杉田重藏書店, 1923, p.25.

45) 同上, p.64.

46) 同上, pp.68~69.

**臺灣** 파이완族 파라자리자오폭 : 옛날 마데야산이라는 곳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속에서 男女가 출현했다. 그들은 神에게서 交合의 道를 배우고 부부가 되어 3 남매를 낳았다. 長男은 頭目이 되고 次男은 副頭目이 되고, 딸은 여자이지만, 耨丁(社人)이 되었다.<sup>47)</sup>

臺灣의 경우 이와 같은 始祖說話는 사제族, 아미族 등 여러 少數族의 各蕃에 많이 전승되고 있다.<sup>48)</sup> 그 번거로운 例示는 줄이거니와, 그 특징을 요약하면 ① 땅 속 또는 巨岩 속에서 男女가 出現하는 점이 일반적이고, ② 그 男女가 神 또는 파리 등 날짐승에게 交媾法을 배워 자손이 번식했다는 점, ③ 男妹의 近親相姦 때문에 動物이나 不具者를 낳아 近親相姦이 금지되었다든지 또는 洪水의 災害를 입었다는 洪水說話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始祖神의 地中出現神話는 臺灣에 뿐만아니라 東南亞 일대에 널리 分布되고 있다. 예를 몇 개 더 보면,

**인도네시아 후로레스島** : 原古에 男妹가 地中으로부터 出現하고, 새의 交尾하는 것을 보고 性交의 법을 알아 결혼하여 三子を 낳았다. 그러나, 近親婚을 했기 때문에 큰 비가 내려 그치지 않으므로 Lero Wulang 神에게 희생을 올려서 피하고, 이로부터 近親婚을 금지하게 되었다.<sup>49)</sup>

**타이族** : Vieng Chan 市の 建設者의 長男 Mate Ang은 송곳과 도끼를 가지고 북쪽으로 갔다. 오늘날의 Mounng Sun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Hate Ang은 송곳을 땅에 꽂았다. 그러자 大地가 동요하면서 큰 구멍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슴떼가 나오고, 다음에 인간이 나왔다. Hate Ang은 그들을

47) 윗 책, p.177.

48) 佐山, 大西의 윗 책에 수록된 것만도 20여 개가 발견된다. 참고로 그 面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p.18~19, p.36, p.40~41, p.47~48, p.51, p.52, pp.53~54, p.57, p.58~60, p.61~63, pp.64~66, pp.66~67, pp.69~70, pp.71~74, pp.79~80, pp.90~91, pp.133~137, pp.139~140, pp.141~142, pp.144~157, pp.157~163, pp.177~178, pp.210~211,

49) 大林; 1973, 윗 책, p.371.

데리고 다시 동쪽으로 가서 다시 송곳을 大地에 꽂았다. 이번에는 地中에서 또 인간이 나왔지만 사슴은 나오지 않았다. Hate Ang은 임금이 되고 Hua Phan 전역을 통치했다.<sup>50)</sup>

**Moi 諸族의 Rode 族**: 태초에 다른 민족은 일찍부터 地表에 살고 있었지만, Moi 族은 땅 속에 살고 있어서 매우 불행했었다. 어느 날 그들 중 몇 사람이 地表를 탐험하려 나갈 것을 결심하고 Ban-mé-Pleut (현재의 Pin 族의 마을)의 동쪽에 있는 Kband Prigne 라는 通路의 구멍으로 나왔다. 그들은 땅 위가 매우 살기 좋은 곳을 알고 定住하기로 하여 땅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갔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家畜을 이끌고 家財를 정리하여 地上으로 나오려 했는데,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밧을 내리는 Moi 族의 美女들이 화장을 끄게하노라고 虐政을 부렸다. 불행하게도 그녀들의 순서가 되어 출발하려고 했을 때는 머리가 두 개 달린 水牛가 나가다가 구멍에 빨이 걸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여 구멍이 막혀 버렸다. 水牛는 거기에서 죽고, 구멍은 영원히 막혀버려 여자들은 地上에 나오지 못하고 말았다. Moi 族에 美女에 적은 것은 이 때문이다.<sup>51)</sup>

또 古文獻으로 後漢書 卷 116 列傳 76 南蠻傳에도 地中出現 이야기가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것이다.

巴郡과 南郡의 蠻人에는 본래 五姓이 있었으니, 巴氏・樊氏・驛氏・相氏・鄭氏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武洛의 離離山에서 나왔다. 그 산에는 붉은 구멍과 검은 구멍, 두 구멍이 있는데, 巴氏의 아들은 붉은 구멍에서 나오고, 나머지 네 姓의 아들은 다 검은 구멍에서 나온 것이다. 아직 임금이 없을 때 다 귀신을 섬기고 돌 구멍에 칼을 함께 던져 명중하는 자를 임금으로 받들기로 했는데, 巴氏의 아들만이 홀로 명중시키니 다들 감탄했다. 또 각자가 土窟을 타고 가라앉지

50) 뒷책, p. 370.

51) 뒷책, pp. 370 ~ 371.

많은 자가 있으면 임금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경쟁했는데, 나머지 姓氏는 다 가라앉고 巴氏만이 홀로 떠 있으므로 함께 그를 받들어 세우니 임금이 되었다.<sup>52)</sup>

苗族의 이 이야기는 神人이 地中에서 出現하는 점 뿐 아니라, 임금이 되기 위해 돌 구멍에 칼을 던져 명증시키는 競爭方式도 三姓神話의 射矢卜地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로써 유사한 話素가 南中國에도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地中出現神話의 分布에 대해 大林太良氏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東南亞에서는 앓삼, Kha-Moi 諸族, 東部인도네시아 등 古曆栽培民文化 傳統이 農厚한 곳에 分布가 限定되어 있고, 오세아니아에서는 先아우스트로네시아의 栽培民文化의 傳統이 강한 뉴기니아 南部와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 오스트라리아의 一部에 分布되어 있다. 이 分布는 東南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있어서 地中으로부터 始祖出現神話는 원래 先아우스트로네시아의 古曆栽培民文化에 속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sup>53)</sup>

그 文化背景은 後論으로 미룬다 해도 三姓神話의 地中湧出話素가 이러한 넓은 分布領域의 배경을 가진 것임을 이로써 알 수 있다. 三姓神話의 이 地中湧出話素가 꼭 어느 系譜를 거쳐 들어왔다고 지적은 못한다 해도 東南亞, 南中國 沖繩 등의 것들과 같은 系統의 것이요, 그것이 濟州에 흘러 들어와 三神人이 세 개의 구멍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變異되면서 土着化한 것이라 해야 한다. 東南亞의 것이 주로 男女 二神이 地中에서 出現하는데 비해 三神人의 湧出로 變異한 것은 이를 受容하던 당시의 濟州의 社會 文化背景이 그리 만든 것이라 보아진다.

52) 原文: 巴郡南郡蠻 本有五姓 巴氏·樊氏·譚氏·相氏·鄭氏 皆出於武落鍾離山 其山有赤黑二穴 巴氏之子 生於赤穴 四姓之子 皆生黑穴 未有君長 俱事鬼神 乃共擲劍於石穴 約能中者 奉以爲君 巴氏子 務相獨中之 衆皆歎 又今各乘土船 約能浮者 當以爲君 餘姓悉沈 唯務相獨浮 因共立之 是爲廩君 (石富明 『濟州島資料集』, 寶晉齋, 1971, p.170 再引用)

53) 大林, 1971, p.374.

## 2. 箱舟漂着始祖神話

神인이 地中에서 湧出했다는 話素는 韓國에서는 濟州島 밖에 없지만, 神인이 木函, 石函 등 상자 모양의 배(箱舟)를 타고 漂着했다는 傳承은 南海岸 일대에 있었던 듯하다. 鰲洛國의 首露王妃 許黃玉의 漂着, 新羅의 脫解王 漂着神話등이 그 좋은 예다. 首露王妃 許王后는 阿踰陀國에서 비단옷을 단 화려한 배를 타서 건너 온 것으로 되어 있고<sup>54)</sup>, 脫解王은 龍城國에서 赤龍이 호위하는 배를 타서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sup>55)</sup>, 阿踰陀國이나 龍城國은 想像의 나라, 理想의 나라<sup>56)</sup>, 뚝단 배, 赤龍이 호위하는 배 등은 後代의 美化된 표현이라 볼 것이다. 그 본래적 형태는 三姓神話에서와 같은 木函 따위라 보아진다.

이 유형의 傳承은 日本의 對馬島에도 있으니, 내용인즉, 對馬島主 宗氏의 祖上은 安徳天皇이라고 전하는데, 天皇이 對馬島에 건너올 때 나무상자에 담겨서 漂着했다는 것이다. 그 상자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 神聖視되고 있다고 한다. 이 傳說의 類型에 속하는 傳承은 對馬島, 壹岐島를 비롯한 九州一帶에 많이 分布되고 있다.<sup>57)</sup>

또한 눈을 沖繩로 돌리면 거기에도 이런 유형의 傳說을 발견할 수 있다.

沖繩 宮古島 大浦部落의 始祖: <우부라다시>는 男神이고 <마지루우마>는 女神인데, 男妹였다고 전한다. 두 神은 繼母와 사이가 좋지 않아 눈에 거슬리므로 그의 부친이 상자를 만들어 男妹를 담아 바다에 띄워 버렸다. 얼마없이 상자는 大浦灣에 漂着했다. 두 神은 바깥에 나와 보니 물이 흘렀던 자국이 보였다. 그 자국을 따라 올라가니 까마귀가 몸을 적시고 날아 오르는 것이 보였다. 두 神

54) 『三國遺事』卷二「鰲洛國記」

55) 『三國遺事』卷第一 第四脫解王條

56) 玄容駿: 「古代韓國民族의 海洋他界」, 『文化人類學』第5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2, pp.49 ~ 58.

57) 三品彰英: 「對馬の天童傳說」, 『增補日鮮神話傳說の研究』, 平凡社, 1972. pp.382 ~ 406.

은 여기에 물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사방을 찾아보니, 현재 부락의 입구에 있는 <마에에>라는 우물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착했는데, 이것이 大浦部落의 시조라고 전한다. ……이웃 마을에서는 大浦는 唐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의 자손이라고 전하고 있다.<sup>58)</sup>

이 傳說은 제모에 대한 不孝 때문에 男妹가 상자에 담겨 바다에 띄워 버림을 당해 표착하는 이야기로, 濟州島의 堂神話에서 아들이 不孝하므로 石函에 담아 띄워 버리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男妹와 아들의 다름이 있을 뿐이다.

**宮古島 狩侯部落의 御嶽(神堂)由來:**여기의 神은 본래 五穀의 神이다. 옛날 久米島에 살던 男妹가 近親相姦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 고안놈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男妹를 바다에 띄워 버렸다. 띄우려 할 때, 어머니는 男妹를 불쌍히 생각하여 쌀·보리·조·피·콩 등 五穀의 씨를 몰래 내어 주었다. 男妹는 狩侯部落의 서쪽 해변에 있는 俗稱<메누浜>이라는 곳에 표착했다. 男妹는 농사가 잘될 土地를 찾아 들어가서 지금의 <시다디元>가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오곡의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얼마없이 作物이 익어 풍작이 되고 부락이 그 덕택으로 풍요해졌다. 그래서 마을의 神으로 위하게 되고, 후세에 五穀의 神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sup>59)</sup>

이 傳說은 아버지의 눈에 거슬려 바다에 띄움을 당하는 점이 濟州島의 堂神話의 話素와 같고, 五穀의 씨를 가지고 와서 농사를 시작하는 점이 三姓神話의 話素와 통한다. 다만, 主人公이 男妹라는 점이 다르다.

다음은 臺灣 高砂族의 傳承을 한두 개만 보기로 한다.

**臺灣 高砂族 知本社의 始祖:**대속에서 출생한 始祖 <과구마라이>의 玄孫에 <바고라시>(男), <가부유라시>(女)가 있었다. 이 男妹가 부부가

58) 鎌田久子; 「宮古島の祭祀組織」, 東京都立大學 南西諸島研究委員會編, 『沖繩の社會と宗教』 1965 p.182.

59) 琉球大學民俗學ケラフ, 「狩侯部落調査報告書」, 『沖繩民俗』 12號, 1966, pp.58 ~ 59.

되어 八男妹를 낳았는데, 둘째딸을 <가디가디>라 불렀다. <가디가디>가 성장하여 私生兒 <루구라우>를 낳았는데, <루구라우>는 絶世美人이어서 그 이름이 遠近에 퍼졌다. 그녀는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죽고 하여 세번이나 개가했다. 어머니는 딸이 육체적인 큰 결함이 있음을 알고, 살려 두었다간 세상 사람들이 알아 큰 수치를 당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상자에 딸을 담아 卑南溪에 띄워 버렸다. 상자는 흘러서 바다에 가고 북풍을 받아 知本社에 표착했다. 知本社의 蕃人 <파룻트>란 사람이 사슴 사냥을 다니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頭目에게 알렸다. 頭目 <시가시가우>가 와서 상자를 열어 보니, 絶世美人이 그 속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美人이 표착해 온 내력을 들어 알게 되었다. 蕃人들은 옛날부터 陰部에 이(齒)가 있는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그렇지 않은가를 캐어물으니 <루구라우>가 그것을 수긍했다. 이에 그 陰部の 이를 제거한 후 <루구라우>는 頭目の 처가 되었다.<sup>60)</sup>

高砂族 太巴壘系 아미族的 始祖: 太古에 해와 달 부부 사이에 <치구스>(男), <마다파다프>(女) 라는 男妹가 태어났다. 男妹는 <치라가산>山 밑에 下降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 사이에 <디아마산>이라는 딸이 있었다. 이 딸은 굉장한 미인이므로 海神이 사모하여 어느 날 부모와 자식들을 납치해 갔다. 이 때, 자식 가운데 <치도계>(男), <치라라간>(女)이라는 男妹가 빠져 나와 <도우단>(獨木舟 비슷한 함지박)을 타고 도망쳐쳐 <치라가산>의 頂上에 표착했다. 그래서 男妹는 부부가 되었다.<sup>61)</sup>

이와 같이 함지박에 男妹가 타서 표착했다는 始祖傳說是 아미族的 薄薄社・歸化社・馬蘭社・奇密社 등에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sup>62)</sup>

三品彰英에 의하면 이와 같은 箱舟漂着神話는 韓國南部・渤海沿岸・對馬島

60) 臨時臺灣舊慣調査會, 『蕃族慣習調査報告書』 第二卷, 1919, pp.307 ~ 309, 三品, 1972, pp.388 ~ 390 再引用

61) 위 『蕃族慣習調査報告書』, pp.1 ~ 2, 三品, 1972, p.390 再引用.

62) 三品, 1972, p.390.

大隅・臺灣・支那海沿岸・필리핀・安南의 諸地域에 分布해 있으며, 그 타는배는 棺・木函・石函・배・합지박・獨木舟・뗏목 등이고, 漂着하는 神人は 女性이 일반이며 臺灣 쪽에는 男女가 많다고 한다.<sup>63)</sup>

이들 전승에서 濟州島의 것과 가까운 형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沖繩 쪽인 듯하다.

이로써 보건데, 三姓神話의 三神女가 石函에 담겨 漂着했다는 話素는 東南亞에 分布되어 있는 箱舟漂着型 神話와 같은 系列이며, 沖繩 쪽에서 傳播해 온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三姓神話는 남쪽에서 각각 별개로 흘러 들어온 地中出現始祖神話와 箱舟漂着始祖神話가 濟州에 와서 하나의 神話로 結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해야 한다.

### 3. 三神人 身分序列話素

三始神話는 地中出現始祖神話와 箱舟漂着始祖神話의 結合에다 다시 三神人의 身分序列話素가 중요한 요소로 융해되어 이루어져 있다.

이 身分序列話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 하나는 三神人이 땅에서 솟아난 때의 長・次・三 의 序列을 良・高・夫 또는 高・良・夫라 기록하여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三神女와 婚姻・定着하고 나라를 세울 때 「돌을 쏘아 勇力을 시험하여 上・中・下를 정하고 高氏가 君長, 良氏가 臣, 夫氏가 民이 되었다」는 瀛州誌의 기록이다. 이 序列을 정하는데 활을 쏘아서 정하는 話素는 제주도내의 堂神話에 혼한 것임은 이미 보았거니와, 이러한 身分序列의 決定話素가 외부에도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話素는 國內에서는 慶尙北道에서 發見된다. 張壽根氏의 보고를 옮기면,

「慶北 迎日郡 九龍浦邑 大甫里에는 〈골매기 하시할배, 최씨할배, 양씨할배〉의 三神位가 있다. 그 중에 河氏 조상으로 말하면 壬辰倭亂 또는 世祖篡位 때

63) 三品, 1972, p.394.

에 이 곳에 피란 와서 처음으로 이 마을을 이룩하고 落鄕 1代祖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씨 측에서는 <최씨할배>가 <하씨할배>보다 더 먼저 여기 와서 정착했으며, 처음으로 이 마을을 이룩했다고 우겨서, 때로는 河·崔·梁의 순위가 최·하·양으로 고집되기도 했다.」<sup>64)</sup>

이 大甫里의 골매기는 제주도의 堂神과 같은 것인데, 그 세 神이 三姓의 始祖로 되어 있고, 그 序列의 上下를 다루는 것이 三始神話의 경우와 통한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골매기제사 때에 初獻官이 어느 씨족에서 나오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三神의 序列話素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新羅의 王族, 朴·昔·金氏의 문제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여 韓國의 南部地方에 꽤 널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周邊民族에서는 그 예를 많이 주울 수는 없지만, 이미 例示한 後漢書 南蠻傳의 苗族의 始祖神話도 비슷한 例다. 이 神話에서는 赤穴 黑穴에서 솟아난 다섯 姓氏始祖가 칼로 돌 쪼기, 土船 따기 등 경쟁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돌을 쪼아 명중하는 자로 임금을 정하는 序列決定方式이 三姓神話의 경우와 유사하다.

또, 三神의 序列話素는 沖繩에서도 발견된다. 琉球王朝의 創世神話를 보면,

「옛날, 이 나라의 시초, 아직 사람이 없을 때, 하늘에서 男女 두 사람이 내려왔다. 남자를 <시베리큐>라 하고 여자를 <아미마큐>라 했다. 두 사람이 집을 나란히 짓고 살았다. 이 때는 이 섬이 아직 적어서 물결이 칠 적마다 출렁거리고 있었다. 여기에 <다시가>라는 나무를 심으니 산의 모습이 되고, 다음에 <시큐우>라는 풀을 심고 阿檀나무 심으니 점차 나라땅의 모습이 갖추어져 갔다. 두 사람은 陰陽和음이 없었지만 집이 나란히 있었던 고로 왕래하는

64) 張壽根; 『韓國의 鄉土信仰』, 乙酉文化社, 1975, pp.37 ~ 38.

65) 註 52 참조.

바람을 인연으로 해서 여자는 잉태하고 드디어 三男을 낳았다. 첫째는 君主의 始初가 되고, 둘째는 노로(司祭者)의 始初가 되고, 셋째는 土民의 始初가 되었다.」<sup>66)</sup>

또, 異說(中世年鑑 卷一)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男女 二神이 바람에 의해 잉태하고 三男二女를 낳았는데, 長男은 國主의 始初가 되고, 次男은 諸候의 始初, 三男은 백성의 始初, 長女는 <君君(王國 레벨의 女性司祭者)>의 시초, 二女는 <祝祝(村落 레벨의 女性司祭者)>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sup>67)</sup> 이 神話들은 地中出現 話素는 없으나 三神人이 君·諸候·民등의 階層의 分化와 身分序列 表現이 三姓神話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정도의 例證으로 確言할 수는 없겠지만, 三姓神話의 身分序列 話素가 濟州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沖繩, 韓國南部 一帶에 分布해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分布로 流動하던 話素가 地中出現神話와 箱舟漂着神話가 濟州에 와서 結合할 때 같이 끼어 完結된 하나의 神話로 結構된 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三姓神話는 南方系統의 神話 要素들이 傳播되어 와 濟州에서 하나의 새로운 神話로, 곧 濟州的인 神話로 創出된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 하겠다.

## V. 文化背景

三始神話가 南方系 神話要素의 傳播 영향에 의해 形成되었다 해도 그 要素들이 濟州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結構된 데에는 濟州의 風土的 條件이나 文化背景에의 적응이라는 側面이 있었을 것임이 分明하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

66) 伊藤幹治; 『沖繩の宗教人類學』, 弘文堂, 1980, p. 215.

67) 앞책, p. 215.

이 大林太良氏는 地中出現神話가 先아우스트로네시아의 古層栽培民俗文化에 속한다고 하여 三姓神話의 文化背景에도 示唆를 던져 주었지만, 三姓神話는 地中出現神話要素 뿐 아니라, 箱舟漂着型神話 및 그 외의 여러 神話要素가 복잡하게 結合된 것이요, 이 結構는 당시 濟州의 文化背景에 의한 變異요, 創出이라 볼 것이다.

그러면 그 文化背景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일은 民族學的 比較方法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약하고, 다만 神話는 社會文化的 反映이라는 側面에서 三始神話 자체의 해석에 멈추려 한다.

三姓神話는 地中에서 湧出한 三神人이 수렵생활을 하며 「皮衣肉食」을 하다가 三神女를 맞아 결혼하고 一徙·二徙·三徙에 分居했다는 내용이다. 이 줄거리에서 우리는 당시의 社會組織과 生産形態를 추정할 수 있다.

다른 地域에서는 地中에서 出現한 神人이 男妹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제주에서는 三神人으로 되어 있고, 이 三姓神人이 각각 세 지역에 分居하여 국가를 세웠다는 表現에는 그 社會가 「三」이라는 組織原理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말하자면 三部組織이다. 따라서 姓氏도 3이요, 그 所居地도 3이다. 3氏族이 3개의 地域에 分居하여 하나의 部族國家를 形成하는 組織體系다. 그리고 그 階層도 君·臣·民의 縱的 體系로 三分되어 있다. 이 神話는 氏族社會에서 이러한 三部組織의 部族社會로 넘어가는 단계의 所産이라 본다.

또한 이 神話는 수렵하던 三神人이 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온 三神女와 결혼하여 農牧生活로 定着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狩獵·採集生産形態에서 農牧生産形態로 넘어오는 단계를 말해 주며, 또 男性은 수렵, 女性의 農耕이라는 分業形態의 단계에서 점차 農業爲主의 經濟形態로의 移行을 말해 준다. 수렵에는 漁撈가 겸해졌을 것이고, 農業은 火田耕作이 주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三神人은 바다 건너 想像의 나라에서 漂着해 온 세 神女와 나이 차례로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婚姻制度의 反映이라 보아 좋다. 곧 外部의 女人과 結婚했다 함은 外婚制를 말해 주며, 三神人과 三神女가 나이 차례로 결혼했다 함은 一夫一妻制에 혼인의 序列習俗이 정연한 사회

였음을 알게 한다. 東南亞의 地中出現始祖神話의 경우 男妹의 近親相姦 婚姻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많은데 비해 보면 이 혼인습속은 이해가 간다. 그리고 그 혼인에 있어 三神女가 스스로 三神人에게 와서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夫方居住制의 혼인형태임을 알게 한다.

끝으로 三神人이 地中에서 솟아났다는 話素와 三神女가 東海碧浪國, 日本國 등 바다 건너의 理想國에서 표착해 왔다는 話素의 해석이 남는다. 始祖가 地中에서 솟아났다는 話素는 大地가 먹을 곡식, 과일 등을 여물게 하는 生殖力이 있음을 파악하고, 나아가 人間도 출생시킬 수 있다는 관념으로 진전한 데서 나온 것이라 보인다. 말하자면 大地는 母性原理로 파악하고, 이에서 나온 地母神信仰이 그 밑받침이 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바다 건너 想像의 나라에서 三神女가 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왔다는 話素도 또한 信仰의 표현이다. 五穀의 씨, 송아지 망아지는 수렵의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豐饒를 이룩하는 귀중한 물건이다. 이 상상의 나라는 豐饒를 주는 소중한 물질이 풍성한 聖域이요, 樂土라는 관념이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다. 따라서 이 話素에서 海洋聖域, 海洋樂土의 他界信仰을 읽어낼 수 있다.<sup>68)</sup>

三始神話는 이와 같이 狩獵文化에서 農耕文化로 넘어오는 단계, 氏族社會에서 三部組織의 部族國家社會로 넘어오는 단계에, 一夫一妻外婚制 夫方居住婚姻形態의 社會, 地母神信仰과 海洋他界信仰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神話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文化背景에서의 形成年代는, 先史時代임에는 틀림없지만, 神話學에서는 絕對年代를 말하기는 어렵다. 三姓神話의 文獻記錄에 나오는 年代記錄들을 그대로 史實로 믿고 몇 년 전이니 운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이는 後代의 潤色記錄을 史實로 誤認하는 것일 따름이다. 神話는 어디까지나 神話인 것이다.

68) 玄容鞍; 「古代韓國民族的 海洋他界」, 『文化人類學』 5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2, pp.49 ~ 66.

## VI. 構造와 思考

三姓神話의 構造分析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에 유념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1. 神人(男性)이 땅으로부터 솟아난 점, 그리고, 그 수가 3인이요, 수렵과 皮衣肉食의 低級生活을 했다는 점

2. 바다 건너 동쪽의 理想國에서 세 처녀가 표착해 와서 땅에서 솟아난 세 神人과 혼인한 점, 그리고 처녀들은 五穀과 송아지 망아지 등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풍요한 生活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그 仲媒들 使者가 하고 하늘로 날아간 점.

3. 혼인한 부부의 所居地가 第一都(徒), 第二都(徒), 第三都(徒)로 3분되어 있고, 三神인이 長·次·三의 階層으로 序列化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 이야기는 宇宙論的 측면과 社會學的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分析해 나갈 수 있다.

첫째, 宇宙論的 측면에서 보면 땅에서 男神인이 솟아났다 하고, 바다 건너의 나라에서 神女가 왔다 해서 <땅(地)>이라는 범주와 <바다>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땅>에서는 남자가, 바다에서는 여자가 온 것이라 하여 <땅>은 <남성>과, <바다>는 <여성>과 각각 相關關係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三神女를 모시고 온 使者의 전하는 말을 보면, 「서쪽 바다의 산에 神子 세 사람이 내리시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운운 하여 三神인이 솟아난 곳을 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땅>이라는 범주와 <山>이라는 개념을 같은 카테고리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고 보면 <땅=산-男>과 <바다-女>의 相關關係 인식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세 神女는 바다 동쪽의 나라에서 서쪽의 땅 濟州에 보내왔다 했으니, <동><서>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땅=山><바다>는 自然概念이요, <男><女>는 人文概念이며 <東><西>는 방위개념이다. 이 세 개의 개념은 각각 雙分的 象徵體系로 맞추어져 對偶關係를 이루고 있다. 즉 <땅(山).

男·西>는 같은 범주로 연결되고, <바다·女·東>은 또한 같은 범주로 연결되어 이 두 범주가 각각 對偶關係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쪽 땅의 男性의 生活은 수렵으로 가난하고 低級한 것이었는데, 동쪽 바다나라의 神女가 五穀의 씨, 송아지 망아지 등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므로써 살림이 풍요해졌다 했으니, 이는 서쪽의 男性世界는 가난, 동쪽의 女性世界는 豐饒라는 상징이 된다. 그리고 이 <男>과 <女>, <가난>과 <풍요>의 結合을 맺어 주는 仲媒役은 하늘로 날아간 使者가 맡고 있으니, <하늘>이란 범주가 이들 仲介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들 相關·對立의 構造體系는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圖式化된다.

西—地(山)—男—가난  
東—海 — 女—풍요

이 構造體系는 古代 濟州人의 思考體系와 意識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된다. 오늘날의 「東 부자, 西 가난」운운 하는 俗信의 方位象徴이 이미 여기에서 발견되며, 女性·바다를 豐饒의 原理로 인식한 思考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쪽 땅의 가난한 男神이 東海의 外來 女神을 맞아 풍요를 이루었다는 데서 外部世界의 文化를 包容·昇華시키는 濟州人의 調和의 意識을 읽어낼 수 있다.

다음, 社會學的 측면을 보면, 湧出한 神人이 3人이요, 그 所居地가 一·二·三都(徒)로 三分되어 있고, 三乙那가 長·次·三의 三階層으로 序列化되어 있다. 이 話素들은 社會空間과 社會秩序의 認識樣相이다. 所居地의 三分은 社會空間의 三分이요, 三人 湧出, 三階層의 序列化는 社會秩序 構造의 三分을 의미한다. <三>이라는 數의 原理가 事象마다 일관되어 있는 것은 社會의 三部組織, 三分體系의 構造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體系의 의미 해석을 위해서는 三神人의 이름과 所居地의 이름의 해석이 크게 소용된다.

高乙那·良乙那·夫乙那의 이름 해석에 대해서는 몇가지 說이 있다. 高·良·夫의 姓氏에 「乙那」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고, 「乙那」는 <얼레><얼

라) <알라> 등 小兒를 뜻하는 말의 漢字表記로 보는 이도 있고,<sup>69)</sup> 李殷相은 良乙那는 <올닉>, 高乙那는 <콜닉>, 夫乙那는 <볼닉>의 漢字表記로 보고, <올><콜><볼>은 神聖, 光明, 統禦의 뜻이고, <닉>은 人格을 표시하는 <네>라고 했다.<sup>70)</sup>

筆者는 조금 달리 해석해 보고 싶은 것이다. 첫째, 高·良·夫는 본래 姓일 수 없고, 이것 자체도 이름의 漢字借字表記라 본다. 先史時代에 漢字의 姓氏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高·良·夫가 姓이 아니라면 당연히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의 合成語로 보아야 한다. 셋째는 이 借字들이 音借나, 訓借나가 문제 되는데, <高><良>字는 訓借表記로, <夫>字는 音借表記로 보고, <乙>은 音借 <올> 내지 略音借 <ㄹ>로, <那>는 音借 <닉> 내지 <나>로 보고자 한다. <乙>은 앞엿 말 <高·良·夫>의 訓音의 冠形詞形語尾 <一을>이고, <那>는 <弗矩內>의 <內>와 같은 것으로 現代語 <우리네·그네>들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高乙那는 <높을닉>로 <높은 이>의 뜻, 良乙那는 <어질닉>로 <어진 이>의 뜻, 夫乙那는 <볼닉> 내지는 <볼닉>로 <밝은 이>의 뜻이 된다.<sup>71)</sup>

여기에서 이 借字表記의 구체적 논증을 할 겨를이 없지만, 이 解讀이 맞는 것이라면 이 이름에서 「높음(崇高)」 「어질(善良)」 「밝음(光明)」의 세 가지 價値概念을 찾아낼 수 있다. 三神人의 이름은 이러한 價値概念을 人名化시킨 것이다.

다음은 三神人의 所居地인 第一都(徒), 第二都(徒), 第三都(徒)의 이름의 해석이다. 文獻에 따라 <都>字를 쓴 데도 있고, <徒>字를 쓴 데도 있지만, 이 세 所居地가 오늘날의 濟州市 一徒洞, 二徒洞, 三徒洞임은 그 이름이 현재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거니와, 다음의 李衡祥牧使의

69) 張壽根: 『韓國의 神話』, 成文閣, 1961, p.85.

70)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p.45.

71) <夫乙>은 <불> 또는 <불> 어느 쪽으로 읽어도 光明의 <불(佛)>다와 火의 <불>, 赤의 <붉다> 등이 上代에 같은 語原의 말이므로 상관없다. 또한 巫歌에서 <夫의 民>을 <북의 면>이라고 발음하는 事例를 위에서 보았거니와 이것은 우연한 訛音이 아니라 <붉다>의 <붉>이 <북>으로 발음이 남아 있는 형태로 보인다.

기록으로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처음에 高乙那·良乙那·夫乙那 형제 세 사람이 살 곳을 나누어서 그 地名을 徒라 했다. ……지금 濟州 城內가 三部로 나누어져 있어 一徒·二徒·三徒라 하니 그것이다. (初 高乙那·良乙那·夫乙那 兄弟 三人分處 其地名其所居曰徒 …… 今之州城內分三部 曰一徒 曰二徒 曰三徒)」<sup>72)</sup>

이 기록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所居地를 뜻하는 말은 <徒> 한 字 뿐이고, 一·二·三은 序數라는 것이다. 여러 文獻들에 第一都(徒), 第二都(徒) 식으로 <第一·第二·第三>에 <都> 또는 <徒>字를 쓰고 있음은 그것이 序數임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徒>는 무엇의 表記인가? 李衡祥은 이에 대하여 「徒字는 都字의 잘못의 아닌가 한다. 그리고 濟州方言에서는 <徒>를 <내(乃)>라고 발음하니, 이는 그 당시 칭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徒字疑是都字之誤 而方言稱徒曰乃 似是其時所稱也)」<sup>73)</sup>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徒>字와 <都>字 두자의 쓰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과 동시에 一徒·二徒·三徒의 이름이 肅宗 때까지도 「~내」라고 발음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날 濟州島 巫歌에서 「일내 일도(一徒)이내 이도(二徒) 삼내는 삼도리(三徒里)」라고 노래불러지고 있는데, 여기의 <일내·이내·삼내>는 一徒·二徒·三徒의 原音의 殘影일 것이니, 이로써 <徒>가 <내>의 表記임을 알게 한다.<sup>74)</sup> 또한 梁柱東도 <「徒」의 古訓은 「내」>라고 하고 그것이 地名 人名에 많이 쓰인 것을 例證하고 있다.<sup>75)</sup>

이로써 <~내>위에 序數를 붙여 所居地 이름으로 삼은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所居地를 일컫는 <~내(徒)>가 三神人을 일컫는 <~넉(那)>와 同似音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語源의 <내·

72) 李衡祥, 『南官博物』, 誌蹟條.

73) 위 註와 같음.

74) <徒>가 <내>의 借字表記이면 <都>로 쓰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의문이 남는데, <都>도 封邑 占有의 뜻이니, 결국 居住地의 뜻으로 <내>의 異字表記에 불과한 것이라 본다.

75) 梁柱東; 『古歌研究』, 博英社, 1943, pp.492 ~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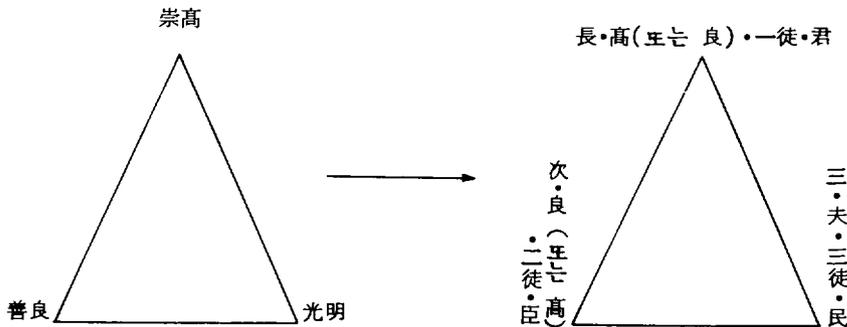
니> 따위 類似音에 價値概念語 또는 序數를 冠形하여 神人名 또는 所居地名을 만들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神人名은 <높다> <어질다> <밝다> 등의 價値概念語를 <~니> 위에 冠形하여 만들었고, 所居地名은 이 價値概念을 첫째·둘째·셋째 식으로 序列化하여 <~내> 위에 冠形하여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所居地名은 神人名의 價値觀의 序列의 表現에 불과한 것이요, 神人名과 所居地名은 對應되는 것으로서 같은 觀念의 다른 表現임을 알게 된다.

한편, 三神人의 序列이 長·次·三으로 구분되어 良乙那·高乙那·夫乙那, 혹은 高乙那·良乙那·夫乙那 식으로 되어 있고, 또는 「高는 君, 良은 臣, 夫는 民」과 같이 <君·臣·民>의 階層序列도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序列도 실은 위의 神人名의 價値概念이나 所居地名의 序數와 對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序列의 長·次·三이나 階層의 君·臣·民이라는 것은 <높다> <어질다> <밝다> 등의 價値概念에 序列을 매기고, 社會成員의 階層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이 神話에서 古代 濟州人의 價値觀을 읽어 낼 수 있고, 그 價値觀을 居住地域에, 長幼의 倫理에, 그리고 社會의 組織과 階層에 각각 확산시킨 思考의 論理를 파악할 수 있다. 이 思考의 體系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價 值 觀

倫理·氏族名·居住地域 등의 體系



## Ⅶ. 結 論

이상, 三姓神話의 異本들을 검토하고, 濟州島內의 설화에서 이 유형의 것들과 비교하여 그 性格을 밝힌 후, 이 神話의 傳播論的 系統과 形成過程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 神話形成의 文化背景과 그 構造에서 보이는 思考의 論理까지 分析해 보았다. 이 논술의 요지를 여기에 정리하여 마무리를 짓기로 한다.

1. 三姓神話의 文獻記錄은 많으나 그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세세한 話素까지 고려하여 異本을 나눈다면 『高麗史』系와 『瀛洲誌』系로 가를 수 있는데, 이 兩系 異本에 話素의 차이가 생긴 것은 口傳異說의 記錄差에 연유된 것이다.

2. 三姓神話의 挿話와 話素들을 현재 口傳하는 제주도의 설화와 비교해 보면 巫俗의 堂神본풀이와 극히 비슷한 것임을 알게 하며, 따라서 三姓神話는 본래 三姓氏族의 조상본풀이요, 이 씨족이 숭앙하던 당본풀이적 성격의 神話였음을 알게 한다.

3. 三姓神話는 地中湧出始祖神話와 箱舟漂着始祖神話가 결합되고 거기에 三神人의 身分序列話素가 복합 융해되어 그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神話要素는 주로 沖繩・臺灣・南中國・東南亞 등지의 것과 유사하다. 三姓神話는 이들 南方系 神話要素가 흘러 들어와 濟州島에서 결합 융해되고 새로운 濟州的인 神話로 創出된 것이다.

4. 外來 神話要素를 受容 複合하여 三姓神話를 형성시킨 文化背景은 수렵문화가 農耕文化로 넘어가는 단계, 氏族社會가 部族國家로 형성되는 단계이며, 이 文化에는 一夫一妻 外婚制, 夫方居住制의 婚姻形態가 시행되었고, 地母神信仰, 海洋他界信仰 등이 主要素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三姓神話는 宇宙論的 측면에서 보면,

西 — 地(山) — 男 — 가난

東 — 海 — 女 — 풍요

의 構造體系로 이루어져 있어, 위 文化背景에 살던 古代 濟州人의 思惟의 象

徵體系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神話는 社會的 측면에서 보면 〈崇高〉〈善良〉〈光明〉의 세 가지 價値概念을 基本價値觀으로 하여 이것을 社會空間, 社會秩序, 社會階層, 社會組織·倫理 등 모든 文化事象에 확산시키고 있어, 당시 濟州人의 三分體系의 思考論理를 이해하게 한다.

이 結論에서 三姓神話의 系統과 形成 문제는 濟州 原住民의 文化的 種族的 系統을 示唆해 주는 것이고, 이 神話가 巫俗의 堂神話와 같은 유형인 三姓穴 및 그 祭儀가 본래 巫俗的인 것임을 暗示해 주는 것이며, 또한 이 神話의 構造論理는 당시 濟州人의 世界觀 및 價値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Summary>

## A Study on the Sam Seong Myth

Yong-joon Hyun

1. *Sam Seong myth* is not only the founder myth of three clans named *Ko, Ryang, Boo* in Cheju Island but also the birth myth of *Tam Ra*. There are many documentary literatures on *Sam Seong myth*, but we can divide them into two versions; one is the genealogy of *Korea Sa*(History of Ancient Korea State), the other is the genealogy of *Yeong Joo Ji*(History of Ancient Cheju Island). What discrepancy of the story in each version has come about was due to write down each different view of handing down orally.

2. There is some resemblance between the episodes, stories of *Sam Seong myth* and those of myth of a shrine for a tutelary diety(village tutelary deity) with shamanism in Cheju Island being transmitted by word of mouth at present. With this *Sam Seong myth* closely parallels the myth of a shrine for a tutelary deity in its type originally, which gives us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Sam Seong myth* was a myth of a shrine for a tutelary deity which three clans had worshiped.

3. *Sam Seong myth* has been made up in the combination and integration with three stories as follows; one is the conversational subject on ancestor of emergence from the the earth, another is the conversational one on ancestor of drifting ashore of a box-boat, and the third is the conversational one on the rank of three godlike persons' social position, and

those conversational subjects were spread from one person to another in the southern district separately, being linked together by reaching Cheju Island finally, and which were created as a myth with a new type.

4 . Cultural background forming *Sam Seong myth* is the stage entering an agricultural culture from a hunting culture, and the stage forming a tribal country from a clan society.

5 . Taking a side view of cosmology, *Sam Seong myth* is formed with a structural system as follows;

West	-	Earth(Mountain)	-	Male	-	Poverty
East	-	Sea	-	Female	-	Wealth

which makes us understand the symbolic system of the ancient Cheju Island. Besides taking a side view of sociology, this myth adopted three ideas of value, which were the sublime, the good, and light, as the basic idea of value. And they spread, applied such ideas of value all over the cultural phase of social space, social order, social rank, and social organization, etc., according to it we can understand Cheju Islanders' trisection systematic thinking logic of those days.

6 . The circle of *Sam Seong myth* and the process of forming it offers us suggestions as to racial, cultural genealogy of the native population of Cheju Island, and structural logic of this myth makes us understand Cheju Islanders' outlook on the universe at that time.